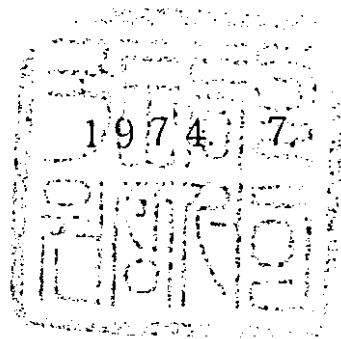


韓國臨政下 左右合作에
關 한 研 究



國 土 統 一 院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4년도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4년 7월 일

연구책임자 추 헌 수 (연대·정법대·교수)
연구원 심 상 훈 (연대·정법대·강사)
연구원 배 영 동 (연대·사회과학연구소·연구원)
연구보조원 김 세 중 (연대·대학원)

要 約 文

1. 研究題目

韓國臨政下 左右合作에 關한 研究

2. 研究의 重要性 및 目的

韓國臨政의 左右問題는 오늘날 南北韓問題의 史的背景을 이룬다. 이 史的背景에 對한 正確한 認識이 缺하는 우리나라 現實問題를 正當히 把握할 수 없고 나아가서 南北統一의 歷史的 使命을 充分히 遂行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重要性에 비추어 本研究에서는

- ① 韓國臨政下에서 展開된 左派와 右派間의 對立·分裂·合作의 歷史的 經驗을 分析하여 教訓을 導出해 념으로써
- ② 오늘날 當面한 南北協商戰略樹立에 必要한 方案을 摸索하는데 目的을 두었다.

3. 研究의 內容과 範圍

- ① 臨政 및 韓國左派生成의 歷史的 性格을 糾明하고
- ② 左右對立·分裂·合作의 經過와 要因을 分析하여
- ③ 거기에 나타난 左派의 性格 및 戰略·戰術의 變化를 밝힘으로써 教訓을 찾아낸다.
- ④ 따라서 本 研究는 史的經驗을 통한 教訓導出에 根拠하여 當面한 南北問題에 活用可能한 戰略的 方案의 方向提示에만 範圍를 局限시켰다.

4. 研究結果 및 建議

① 臨政下의 左右·合作分裂은 主体的 条件보다는 國際情勢 특히 中國情勢 말하자면 外部的 要因에 거의 絶對적으로 영향받았으며

② 左派의 性格이 民族共產主義者로부터 國際共產主義者 또 後期에는 民族陣營內 左派의 그것으로 變化하였고

③ 여기에 따라 左派의 戰略도 蘇聯 및 「공민테론」의 東方政策에의 便乘으로부터 中國共產黨에의 吸收, 그리고 民族陣營內 左翼分子의 糾合, 勢力形成으로 變化하였으며

④ 左右 合作·分裂에 있어서 左派의 態度는 左派의 國際關係, 左派內派閥關係, 左派의 國際情勢에 대한 認識如何 및 對右派意識如何에 따라 支配되었다.

⑤ 따라서 臨政下 左右合作·分裂의 經過가 오늘날 南北協商問題에 주는 歷史的 教訓은 協商戰術의 開發도 重要하지만 北韓의 國際關係, 특히 蘇聯 및 中共과의 關係, 北韓內 權力關係, 北韓의 國際情勢에 대한 認識, 對南韓觀 등을 繼統的이고도 科學적으로 研究·檢討되어야 한다는 點이다.

目 次

第一章 序 論	5
第一節 研究目的	5
第二節 研究範圍, 對象 및 方法	7
第二章 臨政의 樹立	8
第一節 臨政樹立의 背景	8
第二節 臨政樹立經過	14
第三節 臨政의 性格 및 問題點	18
第三章 臨政下 左派生成의 主客觀的 契機	23
第一節 戰後民族問題와 獨立請願運動	22
第二節 卍런 및 卍민대론의 東方政策	26
第三節 主體的 契機	29
第四章 左右合作·分裂의 經過 및 要因分析	34
第一節 前期의 合作	34
1. 統合政府	34
2. 國民代表會議	44
第二節 後期의 合作	65
1. 政黨統合과 分裂	65
(1) 唯一黨促成運動	65
(2) 民族革命黨으로의 統合과 分裂	70

(3) 中日戦争과 左右合作運動	76
2. 臨政下의 左右合作	81
(1) 朝鮮義勇隊의 光復軍編入	81
(2) 政黨團體의 合作	85
(3) 合作의 性格 및 左派戰略의 變化	87
第五章 結 論	92
附· 圖表	100
參考文獻	104

第一章 序 論

第一節 研究 目的

本研究의 目的은 大韓民國臨時政府下에서 展開된 左派와 右派間의 對立·分裂·合作의 歷史的 經驗을 分析, 檢討하여 教訓을 導出해 냄으로써 오늘날 南北對立問題의 解決에 參考가 되도록 하는데 있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臨政은 1919年 三·一運動의 總和로서 上海에서 樹立된 이래 内外의 온갖 受難으로 거듭되는 沈滯을 겪으면서도 民族自主獨立을 向한 不屈의 國志로 1945年 解放을 맞이할 때까지 名跡을 維持하였다. 그러한 臨政이 안은 問題中에서도 左右派間의 思想的 對立問題는 獨立運動最高機關으로서의 臨政의 機能을 左右하는 重要한 問題였다. 그런만큼 獨立運動期間中의 左右合作問題는 全民族的 與望이었다. 즉 左右派間의 思想的 對立을 克服하여 民族統一戰線을 形成함으로써만이 全民族力量을 結集시켜 獨立運動을 効果적으로 展開하고 밖으로 國際的인 認定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左右合作運動이 거듭 失敗함에도 불구하고 獨立運動家들은 不斷히 臨政을 中心으로 혹은 臨政을 代身한 大同團結體를 構成하여 民族統一戰線을 形成하려고 努力하였든 이유가 있다. 臨政下에서 혹은 臨政과 因縁을 가지는 이러한 左右合作運動은 前後 6次에 걸쳐 展開됐다.

第一次은 1919年 上海臨政과 露領의 大韓國民會가 統合하는 過程에서 이루어진 合作으로 1921年 左派의 指導者 李東輝의 臨政 國務總理辭任으로 分裂되었고 第二次의 合作運動은 1923年 國民代表會議에서 頂點을 이룬 것으로 朝鮮 및 僑민테른의 支援下에 一部 臨政을 批判하는 右翼人士와 左派의 主導로 展開했으나 臨政의 存廢問題를 위요한 左派內의 對立으로 失敗로 돌아간 運動이고 第三次은 불쇄비고당에 의한 朝鮮政權의 공고화와 中國의 第一次 國共合作영향을 받아 1920年代 後半에 唯一黨結成促成運動의 形態로 抬頭하였다가 國共合作失敗後 유야무야 해버린 것이고 第四次의 合作은 1935年 民族革命黨으로의 左右團體統合에 成功하였다가 곧 右派의 離脫로 失敗로 돌아간 것이다. 이러한 合作運動은 1937年 中日戰爭發勃과 第二次國共合作의 영향을 받아 또다시 試圖되었으나 1939年 失敗로 돌아 갔다. 이것이 第五次合作運動이라 할 수 있다. 第六次는 左右翼은 各自의 團體를 維持하면서 臨政傘下에 들어가 臨政을 中心으로 1942年 合作하여 解放을 맞이할때까지 抗日 武力鬪爭을 成功的으로 展開한 時期이다.

이와같이 臨政下에서 혹은 臨政과 關聯을 가지면서 展開된 左右 派間의 對立分裂·合作의 過程은 오늘날 南北間 思想的 對立의 史的 背景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史的 背景을 正確하게 認識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現實問題를 올바르게 把握할 수 없고 나아가서 우리의 歷史的 使命인 國土統一의 大業을 完遂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본 연구의 의의와 重要性이 있다고

민는다.

第二節 研究 範圍·對象 및 方法

本研究의 時間的 範圍은 1919年 三·一運動後 臨政이 樹立된 때로부터 1945年 解放을 맞이할 때까지이고 內容上의 範圍 및 對象에는 臨政下에서 이루어졌던, 臨政밖에서 이루어졌던 關係없이 窮極적으로 臨政과 關聯된다고 볼 수 있는 모든 左右派의 政黨, 團體 또는 集團間에 이루어진 活動이 包含된다. 또 合作의 成功与否에도 關係없이 合作運動으로 展開된 것은 모두 包含된다.

本研究의 方法은 史料를 통한 歷史的·分析的 方法을 採하였다.

第二章 臨政의 樹立

第1節 臨政樹立의 背景

1919年 3月1日 日帝暴壓下 서울에서 비롯된 獨立宣言과 示威은 全國적으로 擴大되고 海外에 있는 僑胞들도 이에 呼應하여 騷起하였다. 獨立運動이 繼統적으로 展開되고 있던 3月과 4月中에 露領의 「블라디보스톡」, 上海 및 서울등 세곳에서 各各 臨時政府의 樹立이 宣布되었다.

이와같이 臨時政府, 즉 獨立運動을 指導할 最高機關의 樹立이 各의 同時期에 세곳에서 各各 宣布되었다는 事實은 偶然的인 結果도 光復運動者들 間의 相互 對立 或은 競爭의 結果도 아니었다.

그것은 韓國獨立運動 展開過程의 必然的인 結果였다. 그 必然性의 가장 根本的인 原因은 韓國獨立運動主体力량의 增大와 性格에 基礎하며 當時 韓國問題가 処해 있던 國際, 國內的인 狀況에서 그 契機를 찾을 수 있다.

즉 露領의 韓人은 1860年代 越境流民¹⁾으로서 定着한 以來 일찌기 1905년에는 韓人 “共同利益의 增進”을 위한 自立的 機關

註1 : 韓族의 露領에의 集團移住는 1862-3년에 13戶가 「치신허」 地方에 定着한 것을 嚆矢로 1907년에는 韓人總數 4萬6千名이었고, 1910년에는 5萬2千名, 1921년에는 25萬名이었다.

金俊燁·金昌順, 韓國共產主義運動史 I (서울: 高大出版部, 1967), pp. 27-33.

으로서 「韓族會」를 組織하였고²⁾, 1910年의 韓日合邦以後에는 「聲鳴會」³⁾, 「勸業會」⁴⁾, 「暗殺團」⁵⁾ 등 強烈한 反日集團 및 教育文化人團體를⁶⁾ 이 發生하여 武裝抗日活動과 宣傳을 猛烈히 展開하였다.

1917年 第2次 「러시아」革命이 일어나자 5月 「블라디보스톡」 新韓村에 從來의 各種組織을 總網羅한 「全露韓族會中央總會」를 結成하여 20萬 全「러시아」韓人의 組織으로서 自族自衛, 民族自決의 指標를 세우고 光復運動을 展開하였다. 露領의 이러한 韓人들의 活動은 滿洲地方의 武力根拠地와 隣接해 있기 때문에 海外韓人들이 가장 많은 地帶를 形成하였고 合邦以後 海外로 亡命한 愛國志士들의 活動舞台를 提供하였다.

이러한 露領 및 滿洲地方의 獨立運動 根拠地로서의 成長은 獨立運動指導의 最高機關의 樹立을 要求하게 되는 充分한 主體的 力量이었다.

또 上海에 滬政이 樹立되었다는 것도 결코 偶然한 事實이 아니었다.

註2 : 韓族會는 「블라디보스톡」에서 結成되어 共同利益의 增進이라는 目標下에 教育의 普及, 民族의 團結을 爲主로 活動하다가 1次大戰이 勃發한지 얼마후에 解散되었다.

上揭書, P.77.

註3 : 李相高이 主導한 것으로 처음 出現한(1910年) 強烈한 反日團體.

註4 : 1912年 역시 李相高이 李東輝와 더불어 組織한 것.

註5 : 反日「테러」團.

註6 : 大韓教育青年會, 大韓教育青年聯合會, 共進會, 公共會等

以上 註3-6 上揭書, PP.77-85 參照.

上海는 國際都市로서 世界交通의 要衝地로 獨立運動家들의 國際的
力舞台에 適合하였다. 따라서 三·一運動以前에도 国外로 亡命한
上들이 많이 集結해 있었고 往來가 많았던 곳이 上海였다.

上海에는 1908 年에 「大同保國會」가 組織되어 往來하는 同胞의
爲은 勿論 獨立運動을 위한 人材募集, 資金募集등의 活動을 展
示하였다. 7)

1914 年에는 申圭植, 朴殷植이 「大同輔國團」을 領導하면서 獨立
運動을 展開하였다. 1918 年에 申圭植에 의해서 創設된 「同濟社」
는 上海 獨立運動中心機關으로서 獨立運動家 養成과 宣傳活動을
展開하였고 1919 年 1 月에 접어들어서는 呂運亨, 張德秀, 趙東祐,
鮮于赫, 金澈 등이 「티키」青年黨을 模倣하여 「新韓青年黨」을 組織
하고 金奎植을 「파리」講和會議에 派遣하는 同時에 本國, 日本, 露
領地와의 連絡을 서둘렀다.

이러한 獨立運動中心地로서의 上海에는 國內에서 三·一運動이 發
生하자 露領, 滿洲, 美洲, 國內, 日本等으로부터 繼續 獨立運動指導者
들이 모여 들었다. 李光洙는 東京으로부터, 鮮于赫, 金澈, 徐丙浩,
玄植, 崔昌植 등은 本國으로부터, 그리고 露領에서는 呂運亨이 먼저
오고 아어서 李東寧, 李始榮, 趙璣九, 曹成煥, 金東三, 趙英鎮 등 30

7) : 大同保國會가 募集한 資金은 「블라디보스톡」에서 發行되는
「海潮新聞」의 經濟的 補助로 提供하기도 하였다.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編, 獨立運動史IV (서울: 獨立有功者 事業
基金 運用委員會, 1972) P.106

여명이 呂運弘은 美州로부터 모여 들었다. 8)

이와같은 獨立運動家들의 上海集結은 政府樹立 即 獨立運動 最高 機關의 成立을 위한 主体的 條件을 마련하였다.

國內에서의 獨立運動은, 合邦以後 義兵에 의한 武力抗日은 急速히 衰退하여 갔지만 9) 各種 秘密結社 10) 가 全國적으로 組織되어 民族 意識을 覺醒시켰고 日帝의 殖民地武斷統治는 逆으로 韓國民衆의 獨立 自主國家의 熱望을 더욱 高揚시켰다.

合邦以後 소위 武斷統治下的 韓國은 表面的인 獨立運動의 沈滯 現象과는 달리 民族的 力量의 蓄積時期였다.

이와같은 國內 및 海外的 民族的 主体力量의 增大가 보다 높은 次元의 獨立運動을 展開할 수 있는 現實的 契機를 마련해 준 것은 1次大戰後의 國際情勢이었다.

1次世界大戰이 終局에 가까워지자 歐洲에서는 弱小民族 獨立運動

註8 : ① 朴殷植, (金正起 李賢培 訳) 韓國獨立運動之血史 (서울: - 又文庫, 1973), P. 203.

② 上海 日本總領事館在審察部 第二課, 朝鮮民族運動年鑑, 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Ⅱ (東京: 原書房, 1968) P. 188.

註9 : 朝鮮總督府 資料에 의하면 1908.9 부터 1909.8 까지 780 의 衝突件數에 義兵數는 34,400 名이었지만 다음 1年은 210 件에 3,400 名으로 출고 1910.9 ~ 1911.8 에는 50 件에 390 名이었다 함. 崔永禧, "三·一運動에 이르는 民族獨立運動의 源流", 東亞日報社編, 三·一運動 50週年 記念編集 (서울: 東亞日報社, 1969) P. 35.

註10 : "上掲編文", P. 36 參照.

이 活潑히 展開되었고 그러한 情勢는 獨立을 渴望하고 있던 韓國民族에게도 傳播되어 勇氣를 주었다.

특히, 1917年 大戰中에 일어난 「러시아」革命的 成功과 「볼셰비크」革命政權이 發表한 一連의 被壓迫民族問題에 關聯되는 宣言¹¹⁾ 그리고 1918年 1月8日 「윌슨」美國大統領의 年頭教書와 그 後의 「파리」講和會議에 提出한 戰後處理原則 14個條項中的 「民族自決에 관한 宣言」은 異民族의 支配下에 놓여 있던 全世界의 弱小民族에게 커다란 刺戟과 希望을 주었다. 또한 講和會議의 將來에 대한 論評은 「유럽」의 民族獨立運動이 奏効하여 數個의 獨立國이 出現하리라는 期待를 갖게 하였다. ¹²⁾

이러한 報道는 韓國人을 刺戟하고 鼓舞하여 民族自決思想을 갖지 않는 이가 없도록 하였다. 더욱 海外亡命志士들이 「파리」講和會議에 代表를 派遣하려는 努力¹³⁾과 그에 대한 消息은 全韓國人의

註 11 : 1917年 11月8日의 「平和에 관한 宣言」 同年同月15日의 「러시아人民의 權利宣言」, 同年12月3日의 「러시아 및 東方의 全「이슬람」勤勞者에게」등

金俊燁, 金昌順 前掲書, P. 147.

註 12 : 趙芝燾, 「韓國民族運動史」, 高大民研編, 韓國文化史大系 I (서울: 高大民研出版部) P. 634.

註 13 : 몇가지 예를 들면,

① 1918年 12月1日 美洲韓僑는 全体代表會議를 열고 平和會議代表團으로 李承晚, 鄭翰景, 閔墳鎬의 派遣을 決議하고 「워싱턴」으로 보냈다.

② 서울에서는 1919年初 玄楯을 派遣했다.

③ 露領에서는 尹海, 高昌一을 派遣.

④ 上海에서는 金奎植을 派遣.

로 하여금 祖国光復에의 期待를 부활게 하였다.

여기에 臨時政府 樹立의 要求가 必然的으로 抬頭하게 된 것이다.

「파리」講和會議에 派遣할 代表는 個人 或은 몇몇 團體에 의해서가 아니라 政府代表이어야 했던 것이다. 14)

韓國獨立運動의 主体力량의 成熟과 國際情勢에 있어서의 民族自決主義 風潮가 미친 影響은 1919年 三·一運動에 集積的으로 暴發한 것이다.

이 三·一運動은 또한 그 自体의 論理가 臨時政府樹立을 必然的인 것으로 하였다.

日帝의 統治를 否定하고 獨立을 宣布했으니 自身の 政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當然한 論理였다. 15)

註 14 : 1919年 4月 13日 上海에서는 臨時政府의 成立을 内外에 宣言함과 同時에 新韓青年團의 代表資格으로 「파리」에 가 있는 金奎植에게 곧 大韓民國臨時政府의 外交總長兼 全體大使의 信任狀을 送給했던 것이다.
金龍國,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成立과 初期의 活動” 東亞出版社 編, 前掲書, PP. 887-88.

註 15 : 朴殷植은 다음과 같이 主張하였다.

“우리 民族은 日本의 羈絆에서 벗어 나려고 革命運動을 일으켜 世界에 獨立을 宣布했고 自決主義를 發表했다. 무릇 革命事業의 初創期에는 臨時政府라는 最高機關이 있어 國民의 指標가 되고 나라간의 交涉을 担当하는 것이 世界革命史의 慣例이다. 3月 1日 各處의 獨立團들은 모두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 朴殷植, 前掲書, P. 202.

以上에서 言及한 바와 같은 獨立運動을 指導할 最高機關으로서의 臨時政府의 樹立을 必然的인 것으로 하는 主·客觀的인 狀況

- 歷史的이며 國際社會의 背景 -에서 獨立運動指導者들은 미처 다른 곳과의 連絡을 取할 餘裕도 없이 上海, 漢城, 露領 등 세 곳에서 각각 臨政樹立을 宣布했던 것이다.

이것은 三·一運動으로 祖國光復의 達成이 只尺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興奮된 狀態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었다고 할 수 있다.

第 2 節 臨政樹立經過

韓國의 臨時政府로서 가장 먼저 樹立된 것은 1919年 2月 露領의 「블라디보스톡」에서 「全露韓族中央總會」가 自体改編하여 세운 大韓國民會議이다. 16) 이것은 一種의 露領內 韓人의 民族聯合 機關으로서 「파리」講和會議에 尹海, 高昌一을 派遣하는 始發點으로 民族獨立의 路線을 내 세웠다. 17)

國內에서 三·一運動이 일어나자 大韓國民會議은 露領은 勿論 滿洲地方의 獨立運動家들도 召集하여 盛大한 慶祝大會를 開催하는 同時에 獨立宣言을 發表하였다.

註 16 : 大韓國民會議의 樹立日字에 대해서 3月 17日로 보통 알고 있으나 (孫世一,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政治指導體系”, 東亞出版社編, 前掲書 P. 909 및 趙芝薰, 前掲書 P. 659 등) “大韓國民會議”란 이름은 日羣의 2月 押收文書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金俊燁, 金昌順 前掲書, P. 125 參照.

註 17 : 上掲書, PP. 125-26.

同月 21 日에는 5 個條의 決議文¹⁸⁾ 을 採択하고 孫秉熙를 大統領, 李承晩을 國務總理로 하는 政府組織을 發表하였다. ¹⁹⁾

그러나 三·一運動前에도 國外에 亡命했던 獨立運動指導者들의 往來가 많았던 處는 上海인지라 三·一運動이 勃發하자 各地의 志士들과 三·一運動에 參與했던 國內人士들도 上海로 모이들었기 때문에 政府樹立을 위한 準備가 이곳에서 遂行될 것도 當然하였다.

먼저 3月 下旬, 玄奘을 總督으로 한 獨立臨時事務所가 設置되어 各國에 대하여 獨立을 宣言하고²⁰⁾ 4月 10 日에는 議院定院會議을 열어 國號(大韓民國)와 官制를 決議하고 그에 의한 國務員을 選出함으로써 政府를 組織하고 民主共和制의 臨時憲章을 設定하였다. ²¹⁾

政府組織은 國務總理制로서 國務總理 李承晩, 內務總長 安昌浩, 外務總長 金奎植, 財務總長 崔在亨, 交通總長 申錫雨, 軍務總長 李東輝,

註 18 : 5 個條 決議文 內容은

- ① 韓族의 正當한 自主獨立의 主張
 - ② 合邦條約의 否認과 日本統治撤廢의 主張
 - ③ 講和會議에 대한 政府承認의 要求와 國際聯盟에의 加入
 - ④ 獨立의 理由와 政府樹立의 理由를 各國에 通告
 - ⑤ 以上의 目的이 達成되지 못할 때 對日血戰 宣布
- 孫世一, “前揭論文”, P. 909.

註 19 : 이외에 政府任員名單은 副統領 朴泳孝, 度支總長 尹頌振, 軍務總長 李東輝, 內務總長 安昌浩, 産業總長 南亨祐, 參謀總長 柳東說, 講和大使 金奎植, 洪淳鉉, “漢城·上海·露頓 臨時政府의 綜合過程”, 東亞出版社編 前揭書, P. 895.

註 20 : 前揭 朝鮮民族運動年鑑, P. 188.

註 21 : P. 189 및 前揭 獨立運動史 第 4 卷, P. 159-166 參照.

法務總長 李始榮을 選出하였다. 22) 11日과 13日에 議定院의 議員을 選出하고 同13日에는 内外에 獨立政府 成立을 宣言하였다.

이와같이 露領과 上海를 中心으로 臨政이 組織되고 活動을 展開하기 始作할 때 國內에서는 三·一運動이 全國적으로 擴大·展開되고 있었고 그러한 속에서 또 臨時政府 樹立이 宣布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漢城政府이다.

서울에서는 4月10日 臨政樹立의 企圖가 있었지만 成功하지 못하였다. 23) 4月23日에 13道 代表 24) 가 參席한 國民大會에서 臨時政府樹立을 宣布하고, 6個項의 決議文 25) 과 約法六條 26) 를 發表하는 同時에 다음과 같은 閣員名單을 發表하였다.

註22 : 以後 며칠 사이에 약간의 變動이 있음. 上掲書, 同面 參照

註23 : 日譯이 押収한 文書에 나타난 것으로 「朝鮮民國臨時政府 組織布告文」 「政府創立章程」이 朝鮮民國大會와 朝鮮自主黨의 聯合會名義로 되어 있고 孫秉熙를 正都領, 李承晚을 部都領으로 하고 있다. 洪淳廷, "前掲論文", PP.895-96

그러나 前掲 朝鮮民族運動年鑑, P.189 4月8日條에 "京城獨立本部로부터 姜大茲은 李東輝를 執政官으로 하는 閣員名簿 및 臨時政府憲法原文을 上海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在上海 運動者間에 紛議가 많음"이라고 한 것을 보면 3月1日 以後 곧 臨政樹立이 論議된 것 같다.

註24 : 代表名單은 上掲 朝鮮民族運動年鑑 P.193 參照.

註25 : 決議文의 主要骨子は ① 臨時政府組織件 ② 日本政府에 대한 對韓統治權의 撤去와 軍備撤退 要求件 ③ 「파리講和會議에의 代表選定의 件」 ④ 納稅拒絕 및 朝鮮人 官公理의 退職要求 ⑤ 韓人의 請願 및 訴訟行爲의 禁止등 上掲書, 同面.

註26 : 國體(民主制), 政體(代議制), 國是(自由, 權利의 保障과 世界平和의 增進) 臨政의 權限(內治外交) 國民의 義務(納稅, 兵役) 등 上掲書, PP.193-94.

執政官總裁	李承晚
國務總理總裁	李東輝
外務部總長	李容萬
內務部總長	李東寧
軍務部總長	盧伯麟
財務部總長	李始榮
法務部總長	申圭植
學務部總長	金奎植
交通部總長	文昌範
勞動部總長	安昌浩
參謀部總長	柳東說 ²⁷⁾

이 漢城臨時政府는 곧 全世界에 弘報됨으로써 그 存在가 不勳의 것이 됐고 李承晚은 美國에서 이것을 받아 들여 안으로는 執政官總裁, 밖으로는 President로 行勢하면서 外交活動을 展開하였다. ²⁸⁾

이렇게 하여 韓國獨立運動 最高機關인 臨時政府는 「블라디보스톡」, 上海, 서울등에 각각 세워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政府가 세개나 存在한다는 것은 對內的으로 抗日鬪爭에 있어서 힘의 分散 내지 混線을 招來할 뿐만 아니라 對外的으로 民族의 政治的 統一을 疑心받게 될 것이므로 當然히 그 統合이 要請되었다.

註 27 : 이 閣員名單은 後에 統合政府에서 基準이 된 것이다.

上揭書, 同面.

註 28 : 前揭 獨立運動史 P.218.

臨政統合試圖는 同年 4月부터 始作되어 8月과 9月에 이르러서
는 法統은 漢城政府를 이어 받고 上海臨政과 露領의 國民會議가
統合하여 上海에 둔다는 原則下에 露領의 國民會議의 解散과 李東
輝의 國務總理就任으로 成功하였다. 29)

第3節 臨政의 性格 및 問題點

大韓民國臨時政府는 拳族의인 三·一運動의 精神에 立脚하여 樹立
된 韓國光復運動을 指導하는 唯一한 最高機關이다. 露領, 서울, 上
海의 各 政府가 適當한 節次를 經由하여 統合政府로 誕生한 이상
大韓民國臨時政府는 이제 韓國光復運動을 指導·統轄하며 對外的으로
三·一運動에 表現된 韓國民族의 全意志를 代表할 수 있는 位置에
놓인 것이다.

그러나 臨政은 樹立 当初부터 그 機能을 効果的으로 遂行할 수
있는 것인가를 疑心케 하는 對內外的인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었다.

그러한 問題點中 包括的이며 特徵的인 세가지만 들어 보면 다음
과 같다.

가. 臨政은 政府로 樹立된 以上 國際社會에서 認定을 받아야만
했다. 事實 本章 第1節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1次大戰後는
民族自決主義 風潮가 澎湃하고 그러한 機會에 獨立을 保障받으려는
努力이 獨立運動者들 間에 猛烈히 展開되고 있었다.

註 29 : 統合經過에 關해서는 第四章 1節가項 參照.

國際社會에서 認定을 받고자 하는 熱望이 臨政의 樹立을 서둘렀고 세계의 政府가 統合하도록 해 준 客觀的 要因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戰後處理原則으로 提示된 民族自決主義는 한낱 理想主義에 不過했고 其實은 國際秩序의 現象을 維持하고 既存秩序를 尊重하는 強大國中心의 國際社會가 여전히 支配하고 있었다. 이것은 戰後處理 結果인 이른바 「베르사이유」體制에 그 本質的 性格을 그대로 나타 내고 있다³⁰⁾

이러한 國際社會에서 上海臨政은 韓日合邦條約을 永遠히 廢棄한다고 宣稱하면서 그 理由로서 該合邦條約은 詐欺와 暴力으로써 締結한 것이므로 無効라고 主張하였다.³¹⁾

그러나 乙巳保護條約이 締結되자 美國을 위시한 各國의 外交使節은 서울에서 撤収하여 버렸고 1910年 合邦條約以後는 主權마저 喪失하여 國際法上으로는 大韓帝國은 消滅한 것이다.

1919年에 樹立된 臨時政府는 當然히 國際的인 承認을 새로이 받아야 한다.³²⁾

그런데 國家가 承認을 받기 위해서는 國內法上의 國家로서 確立되어야 한다. 즉 一定한 地域과 一定한 人民과 系統的인 自主的인 政治組織을 具備해야 한다.³³⁾

政府의 承認은 承認을 받으려는 國家가 國內에 있어서 現實的으로

註30 : 岡義武, 國際政治史, 東京 : 1960. P.221 參照.

註31 : 洪永道編 韓國獨立運動史 (서울 : 愛國同志援護會, 1956) PP.342-343.

註32 : 朴觀淑, 國際法 (서울 : 法文社, 1960) P.100.

註33 : 上揭書, P.63.

支配權을 行使하고 秩序를 維持할 만한 能力이 있어야만 한다. 34)

이러한 要件을 臨時政府가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國土와 人民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效果的으로 統治할 수 있는 政府는 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問題가 있다. 35)

臨政의 國際社會에서 갖는 上述한 바와 같은 性格은 以後 臨政 活動에 反映되고 그것이 朝鮮의 東方政策에 一時的이나마 便乘하려는 努力으로 나아가게 하고 左右合作 分裂의 한 要因으로서 作用하였다.

나. 다음 指摘할 수 있는 問題點은 臨政의 位置에서 온 것이다. 臨政이 位置하고 있던 곳은 上海의 租界이었다.

當時 中國은 革命戰爭의 渦中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帝國主義列強의 侵略下의 半植民地이었다. 이러한 中國內의 複雜한 事情으로부터 臨政은 影響받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上海는 國際都市로서 交通이 便利하고 比較的 安全하다는 점 이외에는 臨政을 恆久的으로 維持해 줄만한 곳이 못되었다.

露領이나 滿洲地方처럼 韓人이 많이 居住하는 곳도 아니었고 美洲처럼 獨立運動資金募集이 容易한 곳도 아니었다. 때문에 上海의 臨政은 獨立運動指導機關으로서의 實質的인 基盤을 갖지 못하였다.

各地에서 모여든 獨立運動指導者들은 出身地域의 活動을 背景으로

註 34 : 上揭書, P. 70.

註 35 : 臨政承認問題에 관해서는 申基碩, 『大韓民國臨時政府의 國際法的地位』 東亞出版社編, 前揭書, PP. 943-45. 參照.

臨政에 臨하게 되고 臨政內에서 그들에게 滿足을 주지 못할 때는 臨政을 떠나서 獨自의으로 行動할 수 있었고 그렇다고 해도 臨政 側으로서의 어떠한 實質的인 制裁도 不可能한 것이었다. 36)

이러한 問題點은 臨政의 性格 및 活動을 規制하는 가장 重要한 要因이었다.

다. 셋째로 指摘할 수 있는 問題는 政治路線問題이다.

臨政은 그 客觀的 必要性和 主體的 要求에서 統合政府로 出發하였지만 단지 日帝로부터 獨立해야겠다는 점 이외에는 現實的이며 統一된 政治理念, 政治路線을 가지지 못하였다.

政治路線의 非現實性和 不統一性은 三·一運動을 前後한 各種 獨立宣言書에 나타나고 있다.

33 人의 獨立宣言文이 “아아 新天地가 眼前에 展開되도다. 威力의 時代가 去하고 道義의 時代가 來하도다” 37) 한 것이다.

1919年 4月 上海臨政의 宣誓文에서 “我等의 人道는 日本의 野蠻을 教化한다” 하고 同政網에서 “民族平等, 國家平等 및 人類平等의 大勢” 云云하고 外國人의 生命 財産을 保護한다고 한 점 38) 등은 한편으로 平和主義的 韓國民族性을 表現하고 있다고 評價될 수 있을지 모르나 冷澈한 國際政治現實의 本質은 理解하지 못하고 當時

註 36 : 李承晚의 美洲에서의 活動이 特徵的으로 表現해 주고 있다.

前掲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2. PP. 436 ~ 441 參照.

註 37 : 秋憲樹編, 資料 韓國獨立運動 I (서울: 연대出版部, 1971) P. 250.

註 38 : 洪永道編, 前掲書, P. 335.

澎湃한 民族自決主義에 대한 幻想에 젖어 있어 現實性을 欠如하고 있다. 또한 美洲의 李承晚, 鄭翰景의 名義로 美國大統領에게 提出한 請願書에는 “列強은 韓國을 日本의 虐政下에서 救出하라고 하면서 韓國을 當分間 國際聯盟의 統治下에 두라”고 하였다. 39)

이에 대하여 大韓國民會議의 文昌範, 金詰燾등의 名義로 된 獨立宣言書에는 “저들의 組織있는 民主主義의 公敵이 正義의 假面을 被하고 世界的 舞臺에 出動한 事는 吾人의 깊이 遺憾으로 삼는 바이다. 天下萬民은 其選良한 將來를 위하여 現戰後에서 바친 偉大한 犧牲은 지금에 無効로 돌아가고 世界의 平和는 드디어 기약할 수 없을런지를 悲觀하게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대저 저 人道의 罪惡이며 公敵인 一種의 努力의 赤裸裸한 勝利에 의하여 보여주는 觀念이라 하겠다.” 40) 고 한 것이나 前記 5個條의 決議案에 目的이 達成되지 않을 때는 “對日宣戰布告”를 하겠다고 한 점등은 現實認識이나 行動路線을 달리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政治的 「이데올로기」도 달리 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이와같이 政治路線을 달리하는 諸派가 비록 獨立運動의 唯一한 最高機關을 樹立해야겠다는 大義名分下에 上海臨政으로 統合을 보았지만 諸派의 餘他性格과 아울러 臨政活動能力을 弱化하고 分裂을 招來하는 要因이 되었다.

註 39 : 民族運動研究所編 民族獨立鬪爭史 史料海外篇 (서울 : 與論社 1957) P. 11.

註 40 : 前掲 獨立運動史 4卷 P. 186.

第三章 臨政下 左派生成의

主·客觀的 契機

韓國獨立運動에 있어서 左派란 共產主義 및 社會主義「이데올로기」를 그 政治路線으로 삼는 集團을 말한다. 이러한 左派의 治動이 하나의 主義運動인 이상 그것은 客觀的, 自然成長的 要素와 主觀的 意識的 要素에 의하여 成立된다.

韓國獨立運動過程에 있어서 左派生成의 客觀的 要素는 一次大戰後의 國際情勢 特히 「러시아」革命過程에 나타난 東方政策과 日帝의 朝鮮統治 및 大陸侵略過程이며 主觀的 要素는 獨立運動主体의 意識的, 計劃的인 側面이다.

本章에서는 新興日本帝國主義의 大陸侵略을 前提로 하고서 一次大戰後 弱小民族問題에 대한 西歐列強의 態度와 蘇聯 및 「콤민테른」의 政策, 그리고 그에 대한 韓國獨立運動陣營內的 反應을 檢討함으로써 左派形成의 契機를 探索코자 한다.

第一節 戰後民族問題와 獨立請願運動

韓國獨立運動에 있어서 「러시아」革命의 成功과 蘇聯 및 「콤민테른」의 東方政策은 적지않은 影響을 韓人에게 미쳤다. 勿論 여기에는 西歐列強을 相對로 한 獨立請願運動의 一時的 挫折이 그 前提가 되기도 한다.

戰後處理原則으로 提示된 두개의 大原則 즉 「윌슨」美國大統領의 民族自決原則과 蘇聯의 「平和에 관한 宣言」에 나타난 原則은

後者가 「러시아」革命 그 自体가 아직 成功할는지도 모르는 不安
定한 狀態에서 提示된 것으로 國際政治上에 어떠한 顯著한 영향력
을 가지리라고 期待하기 어려운 反面 前者는 國際政治上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美国大統領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弱小民
族의 期待하는 바도 그만큼 컸다.

그래서 内外 各地에 散在해 있던 韓國獨立運動團體에서는 「파리」
講和會議을 前後하여 代表를 派遣하고 請願運動을 猛烈히 展開했던
것이다. ¹⁾ 그러나 美国에 있어서는 代表團의 出國許可조차 얻지
못하였고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별다른 成果를 얻을 수 없었다.

會議을 主導하고 있던 各國代表들은 各自의 現實的인 利益保全에
汲汲하였고 民族自決原則은 敗戰國의 解体라던가 ²⁾ 蘇聯같은 對立
國家를 弱体化시키기 위해서 ³⁾만 徹底히 適用되었다. 그래서 會議
結果로 나타난 이른바 「베르사이유」體制에서는 「아프리카」 및
亞細亞의 広濶한 地域에서의 民族獨立 내지 解放問題는 完全히 除
外되고 말았다. 韓國人이 「파리」講和會議에 걸었던 希望 역시
完全히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같은 西歐列強에 대한 幻滅은 그 以後에도 몇번이나 거듭되
었다.

즉 1920年 4月 美国上院의 韓國獨立問題上程과 同年 여름 美

註 1. 第一章 註 13 參照.

2. ① 奧匈帝國治下로부터의 「유고슬라브」國獨立 ② 「루마니아」
「이탈리아」, 「그리스」에 대한 奧匈帝國領土分割併合 ③ 「터
키」로부터의 「아라비아」獨立 ④ 「폴란드」獨立.

3. 蘇聯으로부터의 「핀란드」獨立.

國議員團의 極東訪問을 契機로 걸었던 期待, 1921年末과 1922年初에 걸쳐 美國에서 開催된 「워싱턴」會議(太平洋會議)에 대해서 걸었던 期待등이 그것이다.

美州韓人外交活動의 結晶으로 上程된 美國上院의 韓國獨立問題는 表決에서 55對22라는 적지않은 表差로 否決되고 말았고⁴⁾ 美國議員團⁵⁾에 대해서는 韓國에 到着하기도 前에 韓國獨立運動人士들은 至大한 關心을 가지면서 各種努力⁶⁾을 하였으나 별다른 反應도 얻지 못하였다. 이와같은 幻滅은 「워싱턴」會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 請願運動이 하나의 幻想이었다는 점이 數次에 걸쳐서 證明되었음에도 上海의 獨立運動家들은 「對太平洋會議外交後援會」를 組織하여 마치 한장의 請願書로서 民族的 宿願인 獨立을 達成하거나 達成할만한 氣運이 造成될듯이 宣言書 要求書 願情書등을 決意하였고⁷⁾ 「워싱턴」의 朝鮮人協會도 1922年1月1日

註 4: 국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 4 권 (서울 독립유공자 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2), p.34p.

5: 美國議員團이란 1920年7월에 登程하여 比律賓, 中國, 滿洲 韓國(8月)日本을 거쳐서 9月23日 歸國한 美國 上·下兩院의 150餘名(家族을 包含)으로 構成된 極東視察團 東亞日報, 1920年8月11日 및 同年8月24日 金俊燁, 金昌順, 韓國共產主義 運動史 (서울: 高麗大學校 出版部, 1967), p. 154에서 再引用.

6: 上掲書, 同面參照.

7: 上海日本總領事館在警察部第二課, 朝鮮民族運動年鑑, 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Ⅱ. (東京: 原書房, 1968), pp.285-86.

400餘名の署名으로 請願書를 提出하였다.⁸⁾

그러나 同會議에서는 오히려 日本의 過剩한 人口의 對策을 위해서는 보다큰 資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論理가 支配했던 것이다.⁹⁾ 國際秩序는 「베르사이유」體制가 確固不動한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西改列強에 依한 韓國獨立保障에 對한 期待는 退色해져 가고 民族運動은 彷徨 내지 沈滯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때 한편으로 蘇聯 및 「콤민테른」은 全然 다른 方向에서 韓國獨立運動에 對한 關心을 보이었으니 獨立運動指導者들의 一部가 그에 傾到된다는 것은 當然한 歸結이기도 하였다.

第二節 蘇聯 및 「콤민테른」의 東方政策

西改列強이 韓國問題에 對해서 無關心하고 韓國國民의 獨立請願絶叫가 無視 내지 疎外當한 結果는 달리 蘇聯 및 「콤민테른」의 民族問題에 對한 立場과 韓國獨立에 對한 政策은 그것의 背景이나 動機가 어디에 있건 現實的으로 分明하고 積極的인 것이었다.

1917年11月8日 「平和에 관한 宣言」에서 「富強한 民族에게 掌握되어 있는 弱小民族을 分割하기 위하여 이 戰爭을 繼續한다는 것은 「쏘비에트」政府로서는 人道에 違反되는 最大의 罪惡이라고

註8 : 金俊燁, 金昌順 前掲書. p.155. 「韓國人民致書太平洋會議」原文은 國史編纂委員會編 韓國獨立運動史 資料臨政編Ⅱ, (서울: 探求堂, 1971), pp.301~04 參照.

9 : Robert T.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日版) p.155 金俊燁, 金昌順 前掲書. p.156 에서 再引用.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民族에 대하여 例外없는 平等, 公正한 條件으로서 이 戰爭을 廢棄하는 條約에 즉시 調印할 決意있음을 嚴然히 聲明한다¹⁰⁾고 主張하였다. 또 併合의 本質에 대해서 *... 併合當하는 民族의 確實 明白한 그리고 自發적으로 表現된 承諾 내지는 希望이 없이..... 크고 強力한 國家가 작고 弱小한 民族을 任意로 併合하는 一切의 行爲를 意味¹¹⁾ 하는 것이라고 規定하였다. 異民族의 鐵蹄下에서 신음하던 弱小民族에게는 하나의 福音이 아닐 수 없었다.

蘇聯政權은 이러한 宣言에만 그치지 아니하였다. 同年 11月 15日에는 「『러시아』人民의 權利宣言」을, 또 同年 12月 17日에는 「『러시아』 및 東方의 全『이슬람』勤勞者에게」를 發表하여 그들의 立場을 反復 내지 具體化했을 뿐만아니라 「짜르」政府에서 締結한 一切의 秘密條約을 暴露하는가 하면 * 旧政府에서 가지고 있던 中國에 대한 一切의 特權을 放棄한다 *¹²⁾고 宣言하고 (1920年 7月 25日) 주변의 弱小國家들과 上記宣言과 비슷한 內容의 條約을 各各 締結하였다.¹³⁾

이러한 蘇聯의 政策은 물론 西歐列強을 弱화시키고 그들에 대한

註 10 : 「엠펙스」 「소비에트」 外交十年史 (日訳) 1929.9.15 鄭玩鎬
* 三. 一運動以後의 民族運動과 外勢 * 東亞日報社編 三. 一運動
50週年記念論集 (서울: 東亞日報社, 1969), p. 570에서再引用

11 : * 上揭論文, 同面.

12 : 申基碩 東洋外交史 (서울: 探求堂, 1973), pp. 426-27.

13 :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터키」, 「몽고」 등 鄭玩鎬
* 前揭論文, * p. 574.

弱小民族의 鬪爭을 援助함으로써 蘇聯自體의 安全을 保障받으려는데 그 意義가 있었다.

어쨌든 이러한 蘇聯의 政策은 「파리」講和會議 이후 繼統적으로 蔑視당해 온 被壓迫弱小民族들에게 刺戟과 希望을 주었다.

또 1922年「워싱턴會議」에서 弱小民族에게 悲劇적인 事態가 되풀이 되고 있는동안 「콤민테른」은 1월 「極東人民代表大會」에 中國, 韓國, 日本, 「러시아」, 「자바」로부터 代表를 招請하여 「아시아」의 被壓迫民族에 관한 問題를 討議하였다. 이 자리에서 大會議長 「지노비에프」는 「오늘날 共產主義者의 特別한 關心은 헐벗고 굶주린 東洋의 大衆들에게 있으며 그러한 亞細亞人民의 解放鬪爭에 可能的한 援助를 할것」¹⁴⁾이라고 宣言하였다.

이大會에 韓國代表는 各團體를 網羅하여 招請되었고¹⁵⁾ 이 代表들에 대해서 「콤민테른」이 全力을 다하여 굳은 意志의 政治的 親待를 베풀었을 것임에 분명하다.

「워싱턴」會議에서 「마치 韓國이 地球上에 存在한다는 것을 들은 적도 없는 國家들이. 모인 것처럼 韓國이란 單語는 言及조차 하지않은 것」¹⁶⁾ 과는 좋은 對照를 이루었다.

事實 韓國에 대한 「콤민테른」의 政策은 참으로 具體적이고 積極的으로 進行시킨 것이다. 露領內 韓人의 「불셰이크」化政策도

註 14 : 「로버트」. A. 「스칼라피노」, 李庭植, 韓國共產主義運動의 起源 (서울 : 韓國研究圖書館, 1961), pp.47-48.

15 : 第4章 1節4項 參照.

16 : 鄭玩鎬 前揭論文 pp. 575-576.

且置하고라도 1920年7月에는 「레닌」政府와 臨政間에 援助協定에 관한 秘密協約을 締結하고¹⁷⁾ 同年 12月 「레닌」은 直接 韓國獨立運動資金의 支援을 約束하고 一次的으로 60만 「루블」을 贈與한 일이 있으며¹⁸⁾ 또 獨立運動界의 指導級人士들의 個別的 包摂에 손을 뻗쳐 當時 上海의 自他가 公認하는 巨物級人士 呂運亨같은 사람도 共產主義에 傾倒되고 마는 것이다.¹⁹⁾

즉 蘇聯 및 「콤민테른」의 對韓政策은 韓人內에 「불세비끄」의 共產主義組織을 擴大·強化하는 것과 그것을 民族陣營과의 聯合戰線形態²⁰⁾를 取하도록 함으로써 韓國의 獨立運動을 親蘇化하여 反日·反資本主義戰線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政策은 共產主義「이데올로기」의 當然한 論理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論及한 바와 같은 1910年代末 20年代初에 있어서 蘇聯 및 「콤민테른」의 積極的인 對韓政策은 獨立運動內部에 左派形成의 充分한 客觀的 條件을 마련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第三節 主体的 契機

韓人內 共產主義者의 發生은 크게 세가지 範疇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露領內 韓人의 「불세비끄」化이고 다른 하나

註 17 : 金俊燁, 金昌順, 前揭書, pp. 288 - 301 參照.

18 : 上揭書, 同面.

19 : 上揭書, pp. 169 - 170.

20 : 極東人民代表會에 대한 支援이 그典型的인 例다. 第四章 2節 參照.

는 蘇聯 및 「콤민테른」의 積極的인 東方政策에 便乘하여 祖国獨立을 實現해 보고자 하는데서 出發한 民族主義者의 左傾化가 그것이다. 세 번째의 範疇는 直接的인 國際共產主義勢力과 接觸함이 없이 「러시아」革命後의 世界思潮의 影響을 받아 左翼思想을 가진 경우이다.

韓人의 共產主義 내지 社會主義運動은 「러시아」革命前까지는 國內外를 莫論하고 存在하지 않았다. 「러시아」革命이 일어난지 얼마 후 1918년에야 露領에서 共產主義組織이 出現하였다. 當時 「시베리아」에는 20萬의 韓人이 居住하고 있었다.²¹⁾ 이러한 莫大한 人的資源을 動員한다는 것은 日本의 武力干涉下에 놓여 있던 「쏘비에트」政府로서는 매우 重要的인 일이었다고 祖国을 蹂躪한 日帝의 威脅을 또다시 直接的으로 받게 된 韓人은 「볼레비끄」에 協助하여 反日戰線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當然한 일이었다.

이러한 條件下에서 韓人은 革命政權의 支援을 받아 共產主義組織을 結成한 것이다. 즉 1918年1月22日 「 이르쿠츠크」에서 金哲勲, 吳夏然 등이 「볼레비끄」黨에 直結된 「이르쿠츠크」共産黨韓人支部를 組織하였고 그보다 늦게 同年 6月26日에는 民族的 左翼分子인 李東輝가 朴鎮淳등과 함께 韓人社會黨을 「하바로브스크」에서 組織한 것이 그것이다.²²⁾ 前者가 서쪽 「시베리아」의 「러시아」에 오래전부터 居住한 韓人들로서 大部分이 歸化한 사람들로

註 21 : 金俊燁, 金昌順, 前掲書, p. 30.

22 : 上掲書, pp. 121-124.

組織되고 共產主義意識이 강한데 비하여 後者は 東쪽의 歸化人比例가 적고 母國과 가까운 關係로 共產主義意識보다는 民族意識이 強烈한 韓人들로 組織되었다.²³⁾

이러한 韓人共產主義組織의 出現은 前述한 바와 같이 「러시아」化한 韓人을 「볼셰비끄」化하고 民族的 分子들은 糾合하여 「볼셰비끄」戰線에 寄與케 하려는 必要에 即応한 面도 있었으나 當時 「시베리아」가 赤白派間의 戰爭과 「체코」軍團²⁴⁾ 및 列強의 武裝介入²⁵⁾으로 그 運命이 어떻게 落着될런지 모르는 狀況을 감안한다면 韓人들의 主体的 側面을 強調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最初 韓人共產主義組織이 性格을 달리 하는 二重으로 組織되었고 그 두 組織이 다같이 蘇聯 및 「공민테른」의 世界戰略上의 必要와 結付되어 있었다는 事實은 이후 韓國共產主義運動은 勿論 獨立運動 最高機關으로서의 臨政의 活動에 많은 問題點을 낳는 原因이 되었다.

두번째의 範疇, 즉 本質적으로 民族主義者이면서도 蘇聯에 便乘하여 韓國獨立을 成就할려는 데서 左翼에 加担한, 경우는 前記 李東輝 등의 韓人社會黨에 있어서도 그 一端을 볼 수 있으나²⁶⁾ 「과리」講和會議 이후 西歐列強에 依支한 獨立請願運動의 連續적인 失敗

註 23 : 上揭書, 同面.

24 : 上揭書, pp.97 - 107 參照.

25 : 上揭書, 同面參照.

26 : 呂運亨은 李東輝를 가리켜 「共產主義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評하고 있다. 上揭書 pp.176 - 77.

와 挫折에서 나타난 現象이다. 最初의 두드러진 例로서는 呂運亨, 尹琦燮, 申采浩 등의 高麗共産黨加入에서 볼 수 있다.

1919年9月 韓人社会黨의 李東輝가 臨政國務總理로 赴任한 후 共産主義勢力을 糾合, 共産主義者「그룹」을 形成하여 活動하다가 1921年1月 正式黨으로 組織한 것이 高麗共産黨²⁸⁾이다. 이 共産主義者「그룹」에는 上記한 呂, 尹, 申 外에 趙腕九, 安秉讚, 趙東祐, 崔昌植, 梁憲, 鮮于赫, 金科奉 등이 臨政關係者로서 參與한 것이다.²⁹⁾

이들의 立場은 다만 韓人의 共産黨을 組織하여 「콤민테른」의 承認과 援助를 얻어 獨立運動을 하자는 것뿐이었다.

事實 이 當時는 共産主義에 대한 研究도 充分치 않았고 幼稚한 時期여서 宣言書의 發表도 없었으며 別로 綱領, 規約이라고 確定된 것도 없었다. 高麗共産黨의 宣言 綱領, 黨規가 作成 發表된 것은 1921年5月이었다.³⁰⁾

이와같이 獨立運動者로서의 初期共産主義者들 中에는 蘇聯의 廣範한 民族聯合戰線을 形成시키려는 戰略에의 便乘이 結局 獨立運動 特別 臨政內의 左派形成의 契機를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左派形成의 세계의 範疇는 「러시아」革命後 澎배한 國際思潮의 影響을 받아 自然發生的으로 出現하였다. 露領의 韓人共産主義組織

註 27 : 嚴密히 말한다면 共産主義者「그룹」이라고 한다. 上揭書.

p. 167.

28 : 高麗共産黨의 創黨日에 대해서는 區區한 說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金俊燁, 金昌順氏의 見解를 따랐다. 上揭書, pp. 187-190.

29 : 上揭書, pp. 192.

30 : 上揭書, pp. 193-94.

이 蘇聯 및 「콤민테른」의 積極的인 庇護下에 形成되었고 이른바 民族共產主義者의 出現이 蘇聯, 「콤민테른」의 東方政策 내지 弱小 民族政策에 呼應하여 形成되었던 것과는 달리 세계範圍에 屬하는 共產主義運動은 社會主義思想이 風靡한 國際思潮의 影響을 받은 知識人들에 依한 것이다.

第二者가 蘇聯 및 「콤민테른」의 韓國問題에 對한 政策과 密接히 그리고 直接的으로 關聯되어 있기 때문에 蘇聯의 現實的인 政策과 運命을 같이 하는 性格을 가진 反面, 後者는 共產主義「이데올로기」에 對한 自發的인 攝取에 依한 것이기 때문에 國際共產主義勢力과의 關聯性與否가 그렇게 致命的인 것은 아닌 性格을 가졌다.

1920年代 國內에서 出現한 各種共產主義團體³¹⁾는 이러한 分子들에 의해서 主導된 것이다. 臨政下에서도 初期共產主義運動이 自體의 對立·갈등³²⁾으로 民族聯合戰線³³⁾이 失敗한 후 1930年代와 40年代 臨政下 左派에서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現象이다.

勿論 以上에서 論述한 韓國共產主義運動發生契機의 세 가지 範疇는 嚴格히 區別되는 것은 아니다. 相互 重複 내지 轉換의 現象은 보이었다. 그러나 大體로 上記한 바와 같이 發生契機의 性格을 달리 하는 共產主義運動이 韓國獨立運動 過程에서 부침을 거듭했고 그러한 事實이 臨政下의 左右合作問題의 性格을 規定했다는 歷史的 事實은 認定되어야 할 것이다.

註 31 : 勞動共濟會, 青年聯合會, 無產者同學會, 北風會, 「갈뚝」회동.

32 : 第四章 1節 4項 參照.

33 : 1923年의 上海國民大學의 失敗.

第四章 左右合作・分裂의 經過 및 要因分析

第 1 節 前期의 合作

1. 統合政府

(1) 合作過程

漢城, 露領, 上海등 세개의 政府가 存在한다는 것은 對內外的으로 많은 問題點¹⁾이 있었기 때문에 唯一統合政府의 樹立은 切實히 要望되었다.

統合試圖는 처음 大韓國民 會議側에서부터 始作되었다. 上海議政院會議에서 4月15日 露領代表 元世勳이 大韓國民會와 議政院을 併合하여 政府의 位置를 露領에 두자고 提議한 것이 그것이다.²⁾ 또 大韓國民會議는 同月 29日 會議을 열어 上海臨政承認問題를 討議한 후 우선 假承認을 하고 同 政府가 露領으로 移轉한 뒤에 行動統一을 하기로 決議했다.³⁾

上海의 臨時議政院會議에서는 5월 13일 各地에 散在한 各議會를 統一할 것⁴⁾을 決議하였고 7月11日 第5回 議政院會議에서 다음과 같이 政府側 提案을 可決하였다.⁵⁾

註 1 : 第二章二節 參照.

註 2 : 民族運動研究所編, 民族獨立鬭爭史 史料, 海外篇(서울: 與論社 1956), p.16

註 3 : 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Ⅲ (東京: 原書房, 1968), p.437

註 4 : 前掲 民族獨立鬭爭史, p.21

註 5 : 上掲書, p.26

鄭載冕을 大韓國民會議에 特派했다 하고 p.30 9月20日 系에
는 特派員 玄鎭, 金暉談 一行은 滿洲를 經由하여 露領으
로 來간바 其他情況이 良好하다고 通信報告했다 함.

註7: 前招 民族獨立國爭史 p.29 8月23日 系에 臨時政府에서
p.915 그러나 議院의 決定에 反은 아니었다.
三.一運動 50週年 記念論集 (서울: 東亞日報社, 1969),
註6: 孫世一,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政治指導關係" 東亞日報社編.

을 거쳐 6) 玄鎭, 金暉談을 露領에 派任하였다. 7)
領政府를 漢城政府에 統合한다는 原則을 세우고 國務會議의 議決
安昌浩는 李承晚의 President 稱호를 合法化하고 上海政府와 韓
에 의해서 積極的으로 進行되었다.

나의 政府로 統合하고자 하는 努力은 上海臨時政府의 國務總長 安昌浩
이러한 多數의 政府가 存在하는 데서 오는 問題를 解消하고 하

라는 措辭을 使用치 않고 President로 行務하면 것이다.
다. 李承晚은 上海臨時政府 國務을 가지면서도 上海臨時政府의 國務總長
하고 있던 李承晚과 上海臨時政府의 사이에 呼稱問題로 마찰이 생겼
있는 동안 漢城政府의 執政官總裁 (President)로 美國에서 行務
이와같이 露領의 國民會議과 上海臨時政府에 統合努力이 進行되고

人 以內的 議員을 選出키로 한다)

할 때는 이것을 許諾한다. (議院組織에 있어서 露領에서는 6

但 露領側에서 議會의 位置를 露領으로 한 것은 絕對로 主張

② 臨時議院과 露領國民會議를 合併하여 議會를 組織할 것

의 輿論에 따라서 隨時 自由로 位置를 變更할 수 있다.

① 臨時政府의 位置는 上海에 둔다. 但 政府의 意思나 居留民

露領側과의 사이에 ①上海와 露領에서 設立한 政府를 一切 解消하고 漢城政府를 繼承할 것 ②政府의 位置는 당분간 上海에 들 것 ③上海政府가 實施한 行政은 有効임을 認定할 것 ④政府 名稱은 大韓民國 臨時政府로 할 것 ⑤現在의 閣員은 一齊히 總辭職하고 漢城政府가 選任한 閣員이 政府를 引繼할 것 등 5個項의 合議를 보고 또 國民會議의 議員 5분의 4가 臨時議政院에 들어온다는 條件으로 國民會議는 그 解散을 議決하였다.⁸⁾

한편 上海의 議政院도 漢城政府대로 大統領制로 臨時憲法을 改定하고 (9月6日) 同月 11日에 改政된 憲法에 依拠 李承晩을 大統領으로 選出함으로써⁹⁾ 漢城政府의 法統을 繼承하였다.

李東輝는 그의 心服 金立, 吳永善을 帶同하고 9月 中旬 上海에 到着¹⁰⁾ 國務總理에 就任하였다.

이때의 閣僚名單은 다음과 같다.¹¹⁾

大 統 領	李承晩
國 務 總 理	李東輝
外 務 總 長	朴容万

註 8 : 孫世一, "前揭論文," p. 915

註 9 : 前揭民族獨立鬭爭史, pp. 31-32

註 10 : 金俊燁, 金昌順 韓國共產主義運動史 (서울: 高大出版部, 1967) p. 185 에는 呂運亨調書를 引用 8月 30日이라고 하였으나 本章 註 7 의 引用文과 같이 9月 2日에 露領으로부터 連絡이 오고있는 것을 보면 實질 後 그 즉 玄楯등이 돌아온 9月 18日경일 것이다.

註 11 : 上揭書, p. 187

內務總長	安昌浩
財政總長	崔世馨
軍務總長	處伯麟
法務總長	申圭植
學務總長	金奎植
交通總長	文昌範
勞動總長	(欠員)

이로써 세계의 政府는 統合되고 따라서 左右合作의 成功을 보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露領側의 代表 文昌範은 約束을 어겼다는 理由로 赴任하지 않았다.¹²⁾

(2) 合作의 性格 및 問題點

露領의 指導者 李東輝가 臨政에 參與하여 露領과 上海政府는 一旦 統合을 본 것 같았다. 그러나 이것은 露領內 韓人共產主義 全勢力과의 合作이 아니었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交通總長에 選出된 文昌範은 赴任하지도 않았고 大韓國民會議는 곧 復活¹³⁾된 것이다.

결국 上海臨政의 合作에 應한 것은 李東輝의 韓人社會黨勢力 뿐이었다. 韓人社會黨은 1919年4月25日 블라디보스톡新韓村에서

註 12 : 上揭書, p. 126.

註 13 : 上揭書, p. 127.

黨代表者大會를 開催하고 그 成果로서 朴鎮淳, 朴愛, 李漢榮의 3人을
콤민테른⁷⁾에 使節로서 파견하였다. 이들이 돌아오기도 前에 李東
輝는 上海로 떠났고 이들 역시 곧 上海로 왔기 때문에 露領의
韓人社會黨勢力은 事實上 上海로 옮긴 것이 되었다. 게다가 韓人
社會黨의 지원자인 그레고리노프가 白派軍에 체포되어 死刑당함으로
서 시베리아에서의 韓人社會黨의 存在는 적미해졌다.¹⁴⁾

그러나 露領에서는 金哲勳, 吳夏然 등이 볼셰비키指導者 브리스·스
미야스키의 支援을 받아 同年 9月 5日 이르쿠츠크에 全露韓人共產黨을
組織하여 그들이 러시아에 있어서의 全韓人의 共產黨임을 主張하고
前記 韓人社會黨의 使節團 朴鎮淳 등이 朝鮮政府로부터 받은 公金마
져 奪取하였던 것이다.¹⁵⁾

따라서 上海臨政의 左右合作이란 韓人 社會黨과의 合作이며 또다
른 勢力은 의실의 露領의 韓人을 對峙한 上海臨政과는 對立的인 關係
에 놓여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民族陣營側으로서 보면 臨政內의
共產主義勢力과 露領의 共產主義勢力의 두 勢力과 맞서게 된 것이
다. 또 李東輝等의 韓人社會黨과 露領의 全露韓人共產黨이 알록관
계에 있었는데다 朝鮮의 東方政策이 介在하고 있었기 때문에 臨政
의 左右合作이란 참으로 複雜한 性格을 띠게 된 것이다.

臨政이 가진 諸問題點은 1920年來부터 露骨化하기 시작했다.

註 13 : 上揭書, np.187-90.

註 14 : 上揭書, pp.181-82 參照.

(3) 左派勢力的 擴大

臨政의 初代國務總理로 赴任한 李東輝는 國務總理라는 직함을 利用하여 모스크바의 新임과 援助를 받기 위한 工作을 하는 한편 上海에서의 自派勢力的 擴大強化에 注力하였다.

李東輝의 韓人社会党的 代表는 이미 共민테론에 加入하고 莫大한 運動資金을 받았으나 同資金은 李東輝가 上海로 온후 이르쿠츠크의 全露韓人共産党에게 奪取당하고 말았기 때문에 또 다시 代表를 파견하여 모스크바의 信任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前회에 朴鎮淳·等의 代表를 파견할 때와는 事情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露領에는 이미 全露韓人社会党(9.5)이 結成되어 韓人社会党的 役割까지도 자기所管이라고 主張하고 있었고 李東輝는 民族獨立運動最高 機關인 臨政의 國務總理에 앉아 있는 것이다. 李東輝는 이르쿠츠크 集團의 資金奪取의 橫暴을 糾彈 告發하고 上海臨政의 有用性を 強調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리하여 同年 11月中旬 朴鎮淳을 代表로 上海로 떠나게 했다. 바로 뒤이어 李東輝는 臨政의 使節로 모스크바에 보내기로 한 呂運亨, 安恭根, 韓彰權 세사람중 그의 心服 韓만을 먼저 모스크바에 보냈다. 臨政의 使節은 1919年 10月 呂運亨, 安昌浩, 李東輝, 李東寧, 李始榮 申圭植 등의 會合에서 決定한 것이다. 9)

이와 같이 李東輝는 모스크바의 信任을 받고자 하는 努力을 하

註 9: 上掲書, p.197.

면서 1920年 봄에는 金立, 李漢榮, 金萬謙 등의 露領時代의 同志들과 共產主義그룹을 形成하고 馮민테른 遠東局書記로 上海에 파견된 보이틴스키¹⁵⁾의 協助下에 呂運亨 趙煥九, 申采浩, 安秉謙, 李春塾, 趙東祐, 崔昌植 梁憲, 鮮于赫, 尹琦燮, 金科奉등 民族陣營의 臨政關係者들을 糾合하여 勢力을 擴張하였다. ¹⁶⁾

따라서 臨政內에 美洲 露領, 國內, 滿洲 中國派등 各種派閥이 득실거리고 있는 동안 李東輝등은 思想的 同一性에 立脚한 새로운 파벌을 形成해갔다.

이러한 急速한 共產主義勢力의 擴張은 첫째 自體內에서 오랫동안 共產主義的 活動에 몸담아온 李東輝黨에 비해서 다른 民族主義勢力에서는 뚜렷한 政治的 理念에 統一性을 가지지 못하고 分散 내지 방황하고 있던 점이 무엇보다도 주체적인 要件으로 作用하였고 둘째 民族主義勢力에 의한 西歐列強에 대한 獨立請願運動이 거의 韓國側의 一方的 活動인데 비하여 朝鮮 및 馮민테른의 對韓政策은 積極적으로 呼應해주고 있던데 대한 기대가 크게 作用하였고, 세계 當時 臨政內에서 가장 큰 勢力인 美洲派가 政治적으로 問題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즉 問題란 李承晚의 이른바 위임統治請願問題이다. 이 위임 統治問題를 臨政이 樹立될 때부터 獨立運動者들간에 격렬한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것이다.

註 15: 1920年 봄에 파견되어 中國共產黨 結黨 및 第一次 國共合作에 民완을 보인자이다. 上揭書, p. 188.

註 16: 上揭書, pp. 188-192.

이와같이 李東輝黨은 臨政內部가 각파별로 시세우고 있는 동안 안으로는 民族主義人事들까지 糾合하여 勢力을 擴張하고 밖으로는 金哲勳 등의 全露韓人共産黨을 누르고 崑민테른 第二次黨大會에서 맹활약을 하였다. 이때의 代表로는 共産主義理論에 밝은 朴鎮淳이 파견되었다.

(4) 左右分裂

이와같은 共産主義勢力의 急速한 成長은 民族主義勢力과의 對立을 낳게 마련이었다. 對立이 露骨化한 것은 모스크바 資金問題였다.

모스크바 資金이란 李東輝가 파견한 朴鎮淳과 韓穆權의 活動으로 쏘련政府에서 獨立運動資金으로 받아들인 40萬루블의 資金이었다. 이 資金을 李東輝는 臨政과는 關係없이 자기당의 活動資金으로 써버린 데 말썽이 난 것이다.

원래 이자금에 대해서 李東輝黨에서는 授受事實을 부정하였지만 上海獨立運動界에서는 확실한 事實로 받아들였졌기 때문에 臨政은 資金에 대한 解明과 印證에의 引渡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7)

지금까지 山積해 있던 臨政內의 여러가지 문제점과 함께 이 資金問題로 臨政은 일대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렇게 되자 李東輝의 위신은 크게 失遂하고 呂運亨, 安秉讚 등 臨政關係者들의 共産主義그룹으로 부터의 離脫은 急速히 表面化되었다.

이때는 李承晚이 上海에 滯留하고 있었다. (1920.12.8 上海着)

註 17: 上掲書, pp.203-11 參照.

臨政周邊에서는 李承晩이 大統領으로서 체류하고 있는 동안 임정의 諸問題를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에 모스크바 자금문제가 겹쳐 정국은 더욱 소란해졌다.

이러한 政局을 打開하고자 하는 政局刷新案이 國務會議, 李東輝, 安昌浩, 朴殷植 등에 의해서 提示됐다.

國務會議은 大統領이 上海에 체류하지 못할 때는 行政의 決裁權을 國務總理에 委任하고 國務總理는 每月에 한번씩 大統領에게 政務를 報告하자고 하였다. 이 提案은 李承晩에 依해서 拒絶되었다. 18)

李東輝는 國務總理制度를 變更하여 國務委員制를 채용해서 行政은 그 國務委員會에서 전달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역시 李承晩에 의해서 拒絶되고 安昌浩가 이에 同調하였다. 19)

또 安昌浩, 朴殷植 등은 國民大會를 通하여 정국을 刷新하려고 추진하였다.

1920年1月5日부터 열린 國務會議에서는 以上에 言及한 바와같은 行政決裁權問題, 行政制度의 變更問題등을 論議했으나 李承晩이 현상유지책을 강조하고 반대하여 정국刷新안을 암초에 부딪치고 말았다. 21)

註 18 :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 제 4 권 (서울: 獨立有公者事業基金運用委員會, 1972), p.513.

註 19 : 上揭書, 同面.

註 20 : 本章 第二節參照.

註 21 : 前揭 獨立運動史, p. 513.

이렇게 되자 大統領 이승만에 걸었던 정국수습의 기대도 무너져 政局은 더욱 소란해졌다.

이때 李東輝는 “자기의 刷新議案을 政務會議에 提出하였는데 一言의 심의도 없이 유린한바 본인의 실력으로서 이 난관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퇴하고 말았다. 22)

이로써 左右合作에 의한 臨政은 깨어지고 臨政은 무력한 상태에 빠졌다.

大統領 李承晩도 同年 5月 20日 위상토회의에 대비한다는 名目으로 임정을 떠나고 上海政局은 李東輝派의 高麗共産黨組織과 이에서 이탈한 자들의 이르크츠마에 가담으로 혼란만 거듭하였다.

(5) 第一次合作·分裂의 性格

1919年 9月 李東輝의 上海臨政國務總理 就任으로부터 1921年 1月 同辭任에 이르는 左右合作은

- ① 獨立運動指導權問題에 있어서 地域的 派閥性으로부터 思想的 派閥性으로 變質시키는 契機가 왔다. 事實 上海, 露俄, 漢城의 中央政府統合過程에서의 獨立運動者들에게 있어서는 思想的인 問題는 거의 認識하지 못했거나 했다해도 低級한 階級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1年余의 짧은 合作期間은 充分했다고는 볼 수 없어도 民族主義者들의 共産主義에 對한 認識을 갖게 하는 契機를 마련 해 줌으로써 民族主義는 自己位置를 認識한것이다.

註 22) : 前掲 民族獨立鬪爭史, p. 87.

全民族的 与望에 의해서 樹立된 臨政에 대해서 臨政의 存

① 內的背景

① 國民代表會議提起의 背景

2. 國民代表會議

會에서 頂點을 이룬 것이 왔다.

이상과 같은 初期的인 현상은 1923년에 개최된 上海國民代表大
의 共產主義運動에 便乘하는 主体性的 결여로 나타났다.

등 宗란은 이후 共產主義運動이 統一되지 못하고 中國 宗련 등
을 免할 수 없는 것이 왔다. 共產主義運動 指導部에서의 各
總統的인 發展을 이룩하지 못하고 내부적인 各 등 내지는 分散
共產主義運動을 이르렀고 그러할만한 客觀的 條件을 가지면서도
를 가져오는 契機가 왔다. 이것은 東洋에서는 가장 先進的인
아니란데서 오는 問題點으로 以後 韓國 共產主義運動內部的 分裂
③ 臨政으로의 左右合作은 그것이 韓國 全 共產主義勢力과의 合作이

以後 臨政下 左右合作問題의 源流를 形成하는 것이 되었다.
면 것이다. 이것은 다른 요인이 함께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르쿠즈프派 高麗共產黨과 密結하고 臨政周邊에 그대로 남아있었
에서 離脫하였지만 그들은 또 다른 共產主義의 한 勢力인 이
任과 그의 派 韓의 高麗共產黨組織으로 많은 人事들이 李東輝黨
總領의 共產主義들의 活動舞台를 提供해 준 것이다. 李東輝의 辭
이것은 當時 國際思潮의 影響이기도 하나 臨政의 左右合作은

② 上海臨政의 左右合作은 共產主義勢力의 擴大를 意味한다. 事實

在自体를 否定하는 側에서도 처음에는 積極的인 臨政反對活動보다는 觀望하는 態度를 取하였다. 대개의 国内外同胞가 臨政에 대해서 獨立 運動最高機關으로서의 役割에 期待를 걸고 그를 求心點으로 獨立運動을 展開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21年에 들어서서는 지금까지 잠재해 있던 諸問題點이 露出되고 그 限界性을 들어내고 말았다.

李承晩은 大統領으로 推戴된 이후 繼續 臨政이 있는 上海에는 오지 않다가 1920年 12月 8日에야 上海에 到着하였다. 그동안에 臨政이 안고 있던 難題의 解決을 李承晩에게 期待하는 바가 컸다.²³⁾ 그러나 이때는 아직도 李承晩의 委任統治請願問題²⁴⁾가 남아 있었는데 모스크바 資金問題로 政界가 混亂되어 있었다.

李承晩은 이러한 政局을 收拾하기 위한 積極策을 내놓기는 커녕 現象維持策만을 講求하여 政局刷新案으로 提示되었던 諸方策은 拒絶하여 버렸다. (第一節 參照)

여기에 雪上加霜으로 1921年 1月에는 露領의 代表이며 國務總理인 李東輝가 辭任하고 自派의 共產主義勢力만으로 高麗共產黨을 公然히 組織하자 (1921年 1月 10日) 政局은 더욱 混亂에 빠지고 臨

註 23 : 臨政이 많은 難題의 解決을 위해 이미 1920年 3月 23日 李裕胤 등 17議員에 의해서 大統領의 2個月 以內的 來到 促求 決議案이 提出되고 2日後 25日에는 同 促求案이 議政院에서 通過된바 있다. 獨立新聞, 1920年 3月 23日 및 同 25日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2, (서울: 探求堂, 1971), pp. 498-99.

註 24 : 이 문제에 대해서 이듬해 3月 26日에 李承晩은 記者會見에서 解明하고 있다. 獨立新聞, 1921年 3月 26日, 上揭書, pp. 188-89.

政은 弱化될 대로 弱化되었다. 이러한 속에서 “大統領도 辭任 意思를 表示했다가 번복하는등 소란을 부채질하였고”安昌浩, 金奎植같은 指導者마저 內閣을 물러가 버려 混亂은 견잡을 수 없었다. 25)

이러한 때 臨政에서 疎外된 側에서나 보다 強力한 統一獨立運動 機關을 熱望하는 측에서 臨政의 改造 혹은 臨政自體의 成立부터 否定하고 새로운 機關의 樹立을 들고 나올 것은 當然한 일이다. 여기에 國民代表會議의 開催가 要求된 것이다.

國民代表會議가 처음으로 論議된 것은 元世燾, 朴殷植등 13名의 連署로된 「우리同胞에게 告함」이란 時局宣言文에서 였다 26)

여기에서 그들은 國民代表會議의 召集을 主張하였으나 이것은 組織的인 活動으로는 發展하지 못하였다.

北京 및 滿洲에서 組織的으로 일어나고 余他各處에서 呼應하게 됨으로서 國民代表會議問題는 民族獨立運動上의 最大問題로 登場하였다.

北京의 國民代表會議開催要求는 1921年 4月 20日에 열린 軍事 統一籌備會에서였다. 이 會는 原來 李承晚과 政治路線을 달리하고 武力에 의한 獨立戰爭을 주장하는 朴容萬, 申采浩, 申肅 등의 滿洲

註 25 : 前掲 獨立運動史, p. 514.

註 26 : 同宣言에서 “……獨立運動의 新局面을 打開하고자…… 國民代表會의 召集을 提唱”한다 하였다.

前掲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p. 342.

獨立軍團體를 統合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그런데 軍事統一機關의 歸屬問題로 討議 끝에 李承晩의 委任統治提案問題를 들어 李承晩은 勿論 臨政까지도 萬場一致로 不信任을 決意하고 國民代表大會의 召集을 決定하였다. 27) 이어서 同會는 國民代表會籌備委員選出²⁸⁾ 宣傳紙「大同」의 發刊, 臨時政府解體要求決議文(4月27日) 統一策進會 發起趣旨書의 發表등 積極적인 活動을 하였다. 30)

同年 5月 6日에는 臨政에 代表를 派遣하고 있던 滿洲地方의 獨立運動家들도 會議을 갖고 委任統治主唱者에 대한 制裁와 臨政의 改造를 要求하는 決議를 하고 李鏞山을 通하여 臨政에 傳達하였다. 31)

이와같이 上海와 滿洲에서 臨政의 解體 혹은 改造를 主張하고 國民代表會議의 召集을 要求하는 活動이 積極化하자 上海에서 國民代表會議을 은밀히 획책하고 있던³²⁾ 安昌浩, 呂運亨도 그것을 表面化 推進運動을 벌였다. 이들은 演說會를 열어 國民代表會議의 召集을 主張하여 上海韓人의 積極적인 贊同을 얻고 그 余勢를 몰아 國民代表會期成會促成會(5.19)와 國民代表會期成會(6.6)를 組織하고 北京側과 協議하여 國民代表會籌備委員會로 發展시키고 同籌備會委員으로

註 27 : 前掲 獨立運動史第 4, pp.516-16.

註 28 : 朴容萬, 申肅, 朴健秉, 南孔善, 裴達武, 上掲書, 同面.

註 29 : 申采浩主幹, 週刊紙, 反李承晩言論을 展開함. 上掲書, 同面.

註 30 : 上掲書, 同面.

註 31 : 上掲書, 同面.

註 32 : 上掲書, p.518 參照.

上海의 安昌浩, 呂運亨, 金圭沢, 北京의 朴健秉과 滿洲의 李震山을
뽑았다. 33)

그러나 그의 活動은 곧 中止되고 말았다. 準備資金難 34) 으로
더이상 活動하기가 어려웠던데다 韓國問題와 關聯있는 國際會議가
워싱턴과 朝鮮에서 準備되고 있어 獨立運動陣營內에서는 또 韓國
獨立을 請願할 機會를 가지게 되고 그를 위한 準備에 바빴기 때문이다.

②. 國際的 背景 ※)

1921年 11月부터 開催된 太平洋會議는 遠東問題를 討議한
다는 會議였으므로 民族陣營을 代表하는 臨時政府나 李承晩의 영향
력下에 있는 歐美委員部는 非常한 關心과 期待를 걸고 外交能力을
總動員 集中하였다.

上海에서는 太平洋會議外交後援會가 組織되어 宣傳活動, 募金運動 등
을 벌이고 議政院에서는 大統領 李承晩을 代表로, 歐美委員長 徐載
弼을 副代表로 選出하는등 活潑한 움직임을 보였고 当地 美國에서
의 活動도 活潑하였다. 35)

註 33 : 上掲書 同面.

註 34 : 前掲 韓國獨立運動資料Ⅱ, p. 582 參照.

※ 이 項의 內容은 第三章 第1 및 2節과 重復되는 점이 있
으나 韓國獨立運動 特히 左右問題에 관련이 깊으므로 詳述
한다.

註 35 : 獨立新聞 1921年 10月 28日.

” 11月 19日.

” 11月 30日.

上掲書, pp.300~303.

그들은 美国과 아시아同胞사이에서 太平洋會議에 대한 認識을 높이며 活動經費를 募金하는³⁶⁾ 한편 美国代表團과의 接觸 各種陳情書, 宣言書, 決議文의 傳達, 韓國代表發言機會獲得努力등 致烈한 活動을 展開하였다.³⁷⁾

그러나 太平洋會議는 本質上 弱小民族의 解放問題와는 거리가 멀고 列強間의 利權을 再調整하기 위해서 열린 會議였으므로 韓國問題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言及도 없이 끝나버리고 말았다 (1922.2.6)

이 會議에 非常한 期待를 걸고 積極的인 活動을 展開했던 臨政의 大統領 李承晩도 “그들은 大戰中에 宣布한 高貴한 理想을 어느듯 포기한 채 弱小國家를 權力으로 統治하려는 腦力政治의 存統을 그대로 是認하고 있다.”³⁸⁾ 고 痛嘆하였다.

이와 같은 國際情勢의 冷嚴한 現實과 그를 充分히 認識하지 못한 民族陣營의 1919年 파리 講和會議 이후의 連續된 外交的인 失敗는 獨立運動内部의 深刻한 反應을 일으켰다. 이의 集約的인 形態가 國民代表會議開催運動에 나타났다.

對內的인 混亂의 또 하나의 積極的인 契機는 太平洋會議와는 전혀 相反된 意圖에서 개최된 모스크바의 極東人民代表大會였다.

1922年 1月 21日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極東人民代表大會는 極東被

註 36 : 臨政財務次長 李裕弼은 經費問題에 대한 談話에서 太平洋會議는 “日本의 侵略主義를 排除하여 太平洋方面의 平和를 永久維持하려함이 이 회의의 主된 精神”이라고 同胞의 義捐金을 付託하고 있다. 獨立新聞 1921年 10月 5日 上揭書, pp. 309 -10.

註 37 : 前揭 獨立運動史, p.354.

註 38 : 上揭書, 同面.

壓迫民族問題를 레닌主義의 觀點에서 再定立하여 植民地 民族解放鬪爭으로 하여금 레닌主義原則을 固守하도록 하자는데 原来的 目的이었다.

어쨌든 이 大會에서는 韓國問題에 대한 關心이 非常하였다.

韓國의 獨立運動者들은 民族, 共產을 가릴 것 없이 廣範하게 招請되어 同會代表總數 144名의 3분의 1도 넘는 23個代表 52名으로 構成되고 있다. 韓國의 主要代表는 金圭植, 羅容均, 金始燧, 金元慶, 朴愛羅의 民族派人士와 李東輝, 朴鎮淳, 呂運亨, 張建相, 朴慰永, 林元根, 金泰淵 등의 共產派人士이었다.³⁹⁾ 이 중에서도 大會議長團의 한 사람으로 選出된 呂運亨은 레닌을 비롯한 트로츠키 지노비예프등 共産派의 最高位者들과 大會밖에서 韓國問題를 論議하였다.⁴⁰⁾

同大會에서 볼셰비끄黨의 理論家 사파로프는 韓國獨立運動에 대한 支援을 約束하고 廣範한 民族聯合戰線의 結成만이 現段階의 唯一正當한 路線임을 提示하였고 레닌도 韓國問題를 言及하는 가운데 韓國臨政을 支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⁴¹⁾

이러한 方向에 따라 韓國問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決議案이 採択되었다.

- ① 韓國에는 工業發展이 微弱하여 階級意識이 形成되어 있지 않아 階級運動은 時期가 빠르다.
- ② 韓國의 大多數住民이 抵水準의 農民이니 이들이 共鳴하는 民族獨立運動을 展開하고 階級運動者(共產主義者)는 이 運動을 指導하여야 한다.
- ③ 上海臨時政府는 名稱만 過大하고 實力이 이에 同伴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遺憾이 許多함으로 改革할 必要가 있다.⁴²⁾

註 39 : 金俊燁, 金昌順, 前揭書, p.388.

註 40 : 上揭書, pp.394-97.

註 41 : 上揭書, pp.391-93.

註 42 : 呂運亨調書, p. 34. 金俊燁, 金昌順 前揭書, p.393.

이상과 같은 會議經過로 보면 同大會에서는 韓國問題에 對해서 臨政을 中心한 廣範한 民族聯合戰線을 提示하고 있는 것이다.

太平洋會議에 대한 失望과 極東人民代表大會의 韓國獨立運動에 대한 支援約束 내지 方向提示는 韓國獨立運動內部的 改編을 要求하는 客觀的 要因이 되었다.

이 要求에 對한 主体的 反應이 上海國民代表會議인 것이다.

(2) 會議準備過程

獨立運動內의 分裂과 派爭을 止揚하고 새로운 民族聯合戰線을 위해서 國民代表會議를 召集해야 한다는 要求는 前記한 바와 같이 1921年 2月부터 나타나고 同年 6月에는 國民代表會議 籌備委員會가 組織되었다. 同籌備委員會는 太平洋會議와 極東人民代表大會를 契機로 中斷되어 있었다.

그러나 兩大國際會議의 結果는 다같이 民族聯合戰線의 形成을 促求하는 것이 됐다. 太平洋會議의 結果는 지금까지 主流를 形成하고 있던 李承晚의 政治路線에 對해서 懷疑를 穢게 하여 從前 獨立運動方式을 反省 檢討할 것을 強要하는 것이었고 極東人民代表大會의 結果는 直接的으로 廣範한 民族聯合戰線의 形成을 促求했던 것이다.

1922年 4月 10日 朝鮮에서 上海에 돌아 온 呂運亨은 國民代表會議 籌備委員會의 活動을 再開하였다.

同年 5月 10日 同籌備委員會는 宣言書⁴³⁾를 發表하고 6月 3日에는 代表選舉區域·團體 및 人員數를 策定하여⁴⁴⁾ 各處에 通告하고 招請狀을 發送했다.

이러한 上海의 活動을 前後하여 各處에 國民代表會 促成會 또는 期成會가 組織되었다.

그러나 複雜한 上海政局은 同籌備會의 活動을 順調롭게 進行시키지는 않았다. 同籌備會의 活動에 대하여 政府의 反對態度와 機能麻痺, 議政院의 소란⁴⁵⁾, 韓馨權의 資金問題⁴⁶⁾ 등이 엇갈려 견잡을 수 없었다.

이 때의 政局이 얼마나 混亂했던가는 다음과 같은 事實에서 特徵적으로 엿볼 수 있다.

註 43 : 末尾에 “急速한 期間內에 代表會를 召集하기로 하고 于先 我等의 國民代表會를 籌備하는 主旨가 무엇에 있는가를 內外에 宣布”한다고 하고 委員長 南亨祐, 會計 金徹, 同 元世勳 書記 羅容均 徐丙浩라고 되어 있다.

前掲 韓國獨立運動史資料 2, P. 58.

註 44 : 前년에 改正한 事項에 약간의 修正을 加한 것이라 함.

獨立新聞 1922年 6月 3日 上掲書, P 同面.

註 45 : 議政院에서는 國民代表會에 대한 立場 論議하는 中 贊反兩論으로 갈라지고 結局 同會를 支援한다는 決意가 나오고 政府는 이에 대하여 反對態度를 取하고 盧伯麟 學務總長을 除外한 總閣僚가 총사퇴하였다.

獨立新聞 1922. 6. 14 上掲書, P. 520.

註 46 : 모스크바資金中 20萬두불의 歸屬問題를 가지고 일어난 소란, 前掲獨立運動史, 제 4, PP. 523-24 및 前掲 韓國共產主義運動史 1, P. 401 參照, 參照 後者는 同資金이 1922年 11月初에 韓이 尹海와 함께 가져왔다고 하나 문제는 5月에 일어났다.

6月 19日 玉觀彬은 大韓青年大會에 다음과 같은 內容의 建議書를 提出하였다.

- 一. 大韓青年會는 今日 不得已 暫時 革命의 革命團體가 되어 危局을 匡救할 것
- 二. 議政院 國民代表, 制度 法理 大統領 等 모든 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하기 爲하여 左와 如한 方法을 實行할 것
 - (1) 議政院 議員을 全部 辭職시킬 것
 - (2) 各地에 通告하여 議員 및 名士를 選出하여 議政院을 完全히 充實케 할 것
 - (3) 憲法制度를 修正하여 時宜에 適合하도록 할 것
 - (4) 大統領의 任期를 定하며 改選할 것
- 三. 議政院이 完全히 充實되어 圓滿히 解決될 때까지 青年大會에서 選出한 委員에 依하여 暫時 國務院의 事務職權을 代行할 것
- 四. 二十萬圓問題는 該金錢을 青年會에서 押收하여 政府에 完納케 할 것⁴⁷⁾

이러한 때 呂運亨 等に 依해서 時事策進會가 組織되었다. (7月) 呂運亨은 “時事策進會를 現下 上海에 있는 臨時議政院, 國民代表籌備會 韓驛權 金錢事件等에 關해서 各方面에서는 偏見을 固執하여 時局은 紛糾錯雜하고 獨立運動은 드디어 中止하지 않을 수 없는

註 47 : 前掲 民族獨立鬪爭史 史料, P. 119.

狀態에 빠진 것을 痛憤히 생각하는 同志들이 會合하여 各方面의 主張과 利益을 充分히 討議한 후 最善의 方策을 決定하여 이것을 實現하는데 努力하는 모임 ”이라고 하였다. 이 會는 議政院 議員, 臨時政府의 職員, 國民代表會議 籌備委員 등 高麗共產黨⁴⁸⁾ 까지도 包含한 獨立運動團體의 有力者들이 網羅되어 組織한 것이다.⁴⁹⁾

이 會는 各種派閥⁵⁰⁾의 利害가 正面衝突하는 諸事件이 錯雜하게 얽혀 있는 狀況에서 어떤 問題를 具體적으로 解決할 수 있는 團體는 못되었다. 그러나 組織成員으로는 民族, 共產陣營의 聯合戰線이었다고 할 수 있다.

國民代表大會의 代表들이 7月부터 各處에서 서서히 모여들고 있는 동안 10月 1日에는 또 다른 聯合戰線形態의 韓國勞兵會가 組織되었다. 同會는 向後 10年間에 資金百萬元과 勞兵 1萬을 募集養成하여 獨立戰爭을 일으키려는 趣旨로 金九, 李裕弼, 趙尚燮, 崔錫淳, 趙東祐, 羅昌憲, 孫貞道, 金仁全, 呂運亨 등 國民代表會議을 贊成하는 사람이나 反對하는 사람이 參與하여 組織하였다.⁵¹⁾

時事策進會나 韓國勞兵會는 다같이 大韓國民會에 對해서 公式的인

註 48 : 呂運亨, 金萬錄, 崔昌益, 梁憲 등이 共產主義者이었다. 上揭書, P. 120.

註 49 : 上揭書, 同面,

註 50 : 金俊燁, 金昌順, 前揭書 P. 400 에는 文治派, 武斷派, 親露派, 親美派, 中國派, 滿洲派, 漢湖派, 西北派 등이라고 하고 있다.

註 51 : 上揭書, P. 400.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間接적으로는 同회의 推進에 도움이 됐다.

原来 9月 1일에 開催하기로 한 国民代表會議은 代表의 未到着으로 세번이나 延期하다가⁵²⁾ 1923年 1月 3日 드디어 開幕되었다.

(3) 會議經過

国民代表會議은 1923年 1月 3일에 開幕되어 同年 6月 7일에 閉會되었다.

參席人員數에 대해서는 記錄마다 여러가지로 나타나 있으나⁵³⁾ 當時 獨立運動者가 거의 總網羅하여 모인 民族運動史上 最大의 會議었던 것임에는 틀림없다.

註 52 : 일차연기는 10月 10日, 2次연기는 11月 21日

前掲 獨立運動史 제 4, P. 523.

註 53 : 獨立新聞에는 1月 3日 62名 1月 31日 약 90名 3월 5日 1百 24名이었다.

前掲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2, PP, 619 ~ 609.

① 前掲 韓國共產主義運動史 1 P. 402 에는 1922年末까지 100여명의 代表가 參集하였고 會期中에 來到한 代表를 合하던 140명에 達하였다 하고

② 洪永道編, 韓國獨立運動史 (서울: 愛國同志援護會, 1956), P. 346 에는 70여개 代表 160여人이라 하였고

③ 趙芝薰 韓國民族運動史 高大民族文化研究所編 韓國文化史大系 (서울: 同研究所 出版部, 1964), P. 794. 에는 140여인으로 정식회의가 開幕되었다 함.

代表 가운데 共産黨員이거나 關聯者는 約 2 割을 占하였다.⁵⁴⁾
本會議는 1月 3日 豫備會議에서 1月 31日 本會議 2月 2日의
議案確定⁵⁵⁾ 그리고 3月 初旬에 이르는 동안은 약간의 잠음은
있었으나⁵⁶⁾ 비교적 순조롭게 進行되었다.

議案은 軍事, 財政, 生計, 教育, 勞動의 6個分科와 憲法起草委員會
와 過去問題調查委員會의 2個委員會에서 各已 討議된 후 本會議에
上程되어 하나하나 處理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中 申二鎭 등 19人⁵⁷⁾ 이 時局問題 討議案件으로 3個
條項을 내놓았는데 거기에 第三項으로 “本國民代表會議는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組織 憲法制度 및 其他一切를 實際運動에 適合하도록
改造하기를 決議함”⁵⁸⁾ 이 있었다.

이 臨時改造案이 上程되자 會議는 着反兩論으로 갈라져 激烈한 對
峙를 보였다. 反對하는 쪽은 臨政은 몇몇 사람이 任意로 造作

註 54 : 前掲 韓國共産主義 運動史, P. 403. 李東輝를 비롯한 크게
論難의 對象이 될만한 代表는 招請되지도 않았다. 共産黨代表
로는 玄鼎健 王三德이고 그 外는 다른 團體 및 地域代表로
參席하였다.

註 55 : 前掲 獨立運動史, PP. 25 ~ 26 參照

註 56 : 安昌浩氏의 代表權問題 獨立新聞 1月 24日,
前掲書, PP. 614~16.

註 57 : 獨立新聞, 1923年 4月 4日, 上掲書, P. 638. 그러나 前掲 韓國
共産主義 運動史, P. 403에는 朝鮮總督府 警務局資料를 引
用 尹滋英 등 20名이라고 함.

註 58 : 上掲書, 同面

한 不法的인 集團이나 解体하고 새로이 組織해야 한다는 이른바 創造派이다.

會議은 大休로 元世勳等의 大韓國民會議派는 申肅等의 北京集團과 合作하여 臨政打倒를 願하는 創造派를 形成하였고 安昌浩 呂運亨等의 上海集團과 李震山 등의 滿洲代表는 大개 臨政의 改造만을 主張하는 改造派를 形成하고 있었다.

또 이러한 對立의 背後에는 露領派가 李承晚을 頂點으로 하는 親美派를 除去하려는 意圖가 있었고 武力行動으로 獨立을 成就하는 極端的인 軍事一辺主義를 提唱하는 北京軍事統一會議의 武斷派가 無抵抗 내지 外勢依存的인 外交活動에 主力해 온 安昌浩 呂運亨等의 文治派를 排擊하려는 意圖가 깔려 있었다. 59)

臨政改造案은 分科會議에 移牒되어 討議된 후 5月 11日에는 本會議에서 討議하게 됐다. 그동안 時局問題에 관해서 提出된 決議案은 上記 申二鎮 등의 臨政改造案外에 金字希 등의 新機關建設案⁶⁰⁾

註 59 : 上揭書, P. 402.

註 60 : 第二項에 “ 過去 5 年間に 組織된 各機關 및 各團體는 그 稱의 高下와 施設의 広狹을 勿論하고 一切 廢止하여 本會議에서 我運動에 適合한 憲法으로 統一旗幟下에 一新組織할 일 ” 이라고 하였는데 3月 12日 提出한 것이다.

獨立新聞, 1923年 4月 4日, 前揭 韓國獨立運動史, P. 639

柳時彦 등 19人의 國是確立案⁶¹⁾ 朴健秉 등 44人의 提案⁶²⁾ 呂運亨 등 5人의 新獨立黨組織案⁶³⁾ 등이었다.

以上의 提案은 5月 12日의 本會議에서 改造案만을 除外하고 提案者 혹은 同意者에 의해서 取消되었다.⁶⁴⁾

그러나 改造派와 創造派의 紛糾은 도저히 收拾할 수 없는 段階에 到達하였다.

5月 15日에는 21年 5月 이후 國民代表會議推進에 多大한 貢獻을 해 온 李崐山(憲法起草委員)과 同會議의 議長 金東三 및 秘書長 裴天沢, 金衡植이 紛爭을 理由로 한 各該本團體의 召還通告로 代表資格이 喪失되고 會議을 떠나자 露領의 尹海가 議長, 北京의 申爾이 副議長, 역시 露領의 吳昌煥이 秘書長에 各各 選出되어⁶⁵⁾ 大會運營機關은 創造派가 独占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改造派에서는 5月 16日 趙尚燮, 趙尚壁 등 42名이

註 61 : 主要内容 “本國民會議는 徹底한 獨立精神下에 民主共和의 國是를 確定하여 國民의 意思를 集中하기를 決意함”

3月 13日 提案, 獨立新聞 1923.4.4 上揭書, 同面, 後에 提案取消됨, 獨立新聞 1923年 6月 13日 上揭書 P. 648.

註 62 : 역시 國是確立案으로 柳時彦 등의 案과 같은 날에 提案 되었음.

註 63 : 4月 11日 提案 “本國民代表會議는 內外各獨立運動團體를 統合하여 一大獨立黨을 組織하기로 決議함” 獨立新聞, 1923.5.2. 上揭書, P. 641

註 64 : 獨立新聞, 1923.6.13. 上揭書, P. 648.

註 65 : 獨立新聞, 1923.6.13. 上揭書, PP. 648~49.

“統一의 唯一方針인 改造案이 不決되고, 國號, 年號를 새로 定하면 이는 一民族에 兩個國家를 形成하여 可恐의 禍根을 植하는 것이니 이 現象으로는 會議을 더 進行할 수 없다는 通告文을 發하고 會議參席을 拒否하여 會議는 事實上 決裂되어 버렸다.

이후 打開策을 講究하기 위한 몇차례의 努力이 있었으나 失敗하고 말았다. 66)

會議는 創造派만으로 統開되어 6月3日에는 國號를 “韓” 年號를 檀君紀元으로 定하고 6月7日 秘密會議에서는 憲法의 制定, 立法部인 國民委員會의 組織, 行政府인 國務委員會의 組織 등 이른바 韓國政府를 誕生시키고 閉會하였다. 67)

創造派의 政府는 8月 露領의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겨갔으나 朝鮮政府로부터 追放命令을 받고 쫓겨나 호지부지해 버리고 말았다.

(4) 失敗原因

國民代表會議에 의한 民族聯合戰線形成의 失敗要因은 既述한 바와 같이 臨政問題를 因오한 創造派와 改造派의 政治的인 妥協의 失敗 즉 全體的인 立場에서 問題解決을 圖謀한다기 보다는 自己派

註 66 : 처음 創造派의 主動으로 創造派의 尹순등과 盧伯麟과의 會談, 다음은 創造派, 改造派, 臨政側三代表 三人式의 會談
마지막은 創造派만의 會議強行後
獨立新聞, 6月13日, 上揭書, PP. 652~53.

閥의 立場을 優先적으로 固守하려는 派閥性 (Sectionalism)에서 그 直接的인 契機를 찾을 수 있다.

臨政樹立以後 繼續된 各種 派爭에 의한 獨立運動戰線의 紛亂을 止揚하고 強力한 統一獨立運動指導機關을 形成하여 그를 中心으로 全民族的 力量을 總動員해야 한다는 主体的 要求와 太平洋會議 및 極東人民代表大會 등이 준 國際的 刺戟에 의하여 開催된 國民代表會議는 結局 派爭을 克服하지 못한에서 失敗하고만 것이다.

그러면 그 派爭을 克服할 수 없었던 要因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 要因은 包括적으로 表現하면 國民代表會議에 參席한 各派閥은 近代的인 自己克服의 메카니즘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두개 혹은 그 이상의 集團, 派閥사이에 政治同盟 (聯合戰線)을 結成하기 위해서는 各自에게 克服하지 않으면 안될 諸問題를 갖기 마련이고 그러한 諸問題는 派閥·集團自體의 自己메카니즘에 의해서 解消함으로써만이 可能的인 것이다.

自己메카니즘이란 一定한 理念, 路線을 가지고 一定한 戰略과 戰術을 세운 土臺에서 活動하고 새로운 事態에 即應해서는 自己檢討할 수 있는 內部的인 組織體系를 말한다.

이러한 自己메카니즘의 欠如는 國民代表會議에서의 二大派閥인 創造派와 改造派의 境遇는 말할 것도 없고 原來의 各種派閥에서도 두드러진 特徵이었다. 地域的인 關聯性 혹은 人物中心으로 離合集散하는 朋黨이 오랫동안 판을 쳐왔고 그러한 朋黨이 私的인 利害關係에 支配되고 있는 限 完全히 結束된 聯合戰線 혹은 統一機關의 設置란 不可能한 것이었다.

당시 民族陣營이라고 해도 이것은 統合政府 失敗以來 多少 自己 位置를 認識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如前한 朋党的 수라장에 不過했고 가장 理念에 透徹해야 할 自己 論理를 가지고 있는 共産黨도 基本的으로는 그러한 朋党的 性格을 벗어나지 못했다.

事實 國民代表會議의 本來 性格에서 본다면 高麗共産黨의 指導性이 充分히 發揮될 수 있는 條件이었다.

共産黨과 政治路線을 달리하는 李承晩의 리더십이 가장 약화되었을 때이고 民族陣營에서는 出衆한 指導者는 勿論 그 政党的 組織도 가지지 못했다. 이에 비해서 共産黨은 政治理念의 同一性에 立脚한 政党的 組織되어 있었고 朝鮮 및 露民테론으로부터 行動方向에 있어서 指示는 勿論 財政的인 支援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高麗共産黨 亦是 그 政治的 未熟성과 内部的인 派争때문에 自己의 任務를 遂行하지 못한 것이다.

萬一 共産黨이 自体 이데올로기에 充實했다 한다면 露民테론의 韓國問題에 대한 決議를 반드시 一旦은 自体 内部에서 公式的으로 討議되고 党的 實踐方針으로서 再確認하는 것은 勿論 具體的인 實踐方案이 提示되어야 한다.

露民테론 二次大會에서의 高麗共産黨의 實力者 朴鎮淳의 演說⁶⁷⁾은 當時 共産主義 理論水準에서 보면 注目할만한 點이 많았고 事實 同會議에서 注意를 끌었음에도 그후 그것이 高麗共産黨의 方針으로 再確認되지 못했고 極東人民代表大會에서 提示한 方針도 高麗共産黨

註 67 : 前掲 韓國共産主義運動史 I, P. 201.

에서 公式的으로 論議되고 그에 따른 具體的인 方案이 세워졌다는 記錄을 찾아 볼 수 없다. 이후의 過程을 보면 그러한 活動이 全然 없었던 것 같다.

勿論 이것은 共產主義勢力內的 派爭에 연유한다. 靑민테론 2차대회에 參與한 代表는 李東輝派에 局限되었고 이르쿠츠크派는 같은 努力을 다했음에도 參席할 수 없었다. 極東人民代表大會에서는 上海派高麗共產黨의 指導者 李東輝는 이르쿠츠크派와의 對決에서 勢力挽回를 위해서 狂奔하고 있었기 때문에 同大會의 妥의과정에서는 參席도 않았고, 韓國問題에 대한 決議에는 서명하는 것만도 거절하였다. 68)

때문에 두차례의 重要한 國際共產黨會議에서의 韓國問題에 관한 方針은 가장 充實히 履行해야 할 共產主義者들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다.

그러나 中國 國共合作에 있어서의 中國共產黨의 立場은 이와 다르다.

靑민테론 2차대회에서 레닌의 民族問題에 대한 테제⁶⁹⁾를 發表하고 있을 때는 中國共產黨은 組織도 되지 않았다. 中國共產黨이 結成된 것은 1921年 7月이다. 1922年 極東人民代表大會에서의 中國問題에 대한 決議, 즉 “國民革命의 發展과 革命的 부르조아 民主主義와의 協同戰線의 形成과 “單純한 勞動小集團과 有產階級民

註 68 : 上掲書, PP. 394~97.

註 69 : 前掲 朝鮮獨立運動 V, P. 671.

民主主義·急進主義分子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룩할 수 없는 것”⁷⁰⁾ 이라는 사자로프(Sazarov)의 지적을 받아들여 同年 5월에 열린 中共二全大會에서는 當面の 革命路線으로서 “民主主義的 聯合戰線을 形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⁷¹⁾을 분명히 했고 二大大會 直前に 發表된 第一回時局宣言에서도 “...中國共產黨의 方法은 國民黨과 같은 革命的 民主派 및 革命的 社會主義 各團體와 連席會議를 열고 ……하나의 民主主義的 聯合戰線을 建設하여 封建軍閥과의 鬭爭을 繼續하는 것”⁷²⁾이라고 하였다. 1923年 6월에 열린 三全大會의 決議에서는 “中國共產黨은 반드시 國民黨과 合作해야 한다. 共產黨黨員은 國民黨에 加入해야 한다.”고 하여 國共合作에 대한 公式的인 路線을 分明히 하고 또 國共合作을 主張하는 宣言을 發表하고 있는 것이다.⁷³⁾

韓國共產主義者의 國民代表會議에의 參與가 黨的 路線에 立脚한 政治同盟結成의 試圖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러한 任務를 포기한 채 個別的으로 參與하여 朋黨的 派閥鬭爭에 급급했다는 事實은 大會失敗의 重要한 要因이 되었다.

共產黨의 이러한 派黨的 反歷史的 性格때문에 國民代表會議의 主導的役割은 本質的으로 派爭을 克服할 수 없는 오히려 그들의 活動에 依해서 더욱 派爭이 造出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遂行되었다는 점이 同大會가 失敗로 돌아가게 한 原因이다.

註 70 : 池田誠, 中國現代政治史(東京:法律文化史, 1952),
PP, 201~212 參照

註 71 : 上掲書, 同面.

註 72 : 上掲書, 同面.

註 73 : 上掲書, 同面 參照.

國民代表會議을 主導한 사람들은 臨政에서 派爭때문에 밀려난 사람들이거나 혹은 臨政을 처음부터 否定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臨政밖에서 同會議을 主導하는 限 어떠한 形態의 決定-改造건 創造건-이건 그것은 臨政의 存在와는 對立的인 性格을 가진다. 왜냐하면 臨政을 아주 없애버리려는 創造派의 主張은 말할 것도 없지만 改造派의 主張대로 臨政의 改造가 決議되었다 해도 그것은 臨政自体가 내린 決定은 아니기 때문이다. 臨政은 國民代表會議가 推進되고 있을 때 그러한 會議을 臨政이 主催해야 한다는 內部的인 主張에 否定的인 態度를 取하고 있다. 74)

따라서 國民代表會는 当初부터 臨政과의 關係를 明確히 하지 않는 限 國民代表會議가 成功裡에 끝난다해도 거기에는 다시 臨政과의 關係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代表會議推進者들은 그러한 自己性格-臨政에 대해서는 派爭的, 國民代表會議에 있어서는 統合者的-을 認識했다고 볼 수 없고 그들이 그것을 充分히 認識했다 해도 그러한 活動을 推進하는 限 自己性格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이것이 結局 同會議가 破局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對決은 創造派와 改造派와의 對決보다는 創造派와 臨政과의 對決로 나타난 原因이다.

이러한 모든 現象을 거듭 지적하는 바이지만 問題克服의 自己매카니즘을 가지지 못한 派爭에 연유한다.

註 74 : 前掲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2, PP. 649~51 參照.

第2節 後期의 合作

1. 政党統合과 分裂

(1) 唯一党促成運動

獨立運動内部의 派争을 막고 統一戰線을 形成하여 祖国光復運動의 새로운 轉機를 마련해 보자는 國民代表會議은 오히려 分裂과 派争만을 深化시키고 말았다.

1922年 여름이후 破綻的 樣相을 보이던 臨時政府는 國民代表會議에 의해서 傷處투성이가 되고 國民代表會議가 끝난 후에는 하나의 외로운 獨立團體로 轉落하고 말았다.

이러한 臨政의 危機를 打開하고 獨立運動의 새로운 展開를 위해서 提示된 것이 左右派를 網羅한 唯一党促成運動이다.

唯一党促成運動은 臨政의 憲法改定問題와 더불어 提起되었다.

즉 1919年의 臨政憲法이 名分과 形式的 體制에 執着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憲法改定問題는 臨政機能의 弱化和 더불어 提起되어져 왔다.¹⁾ 이것이 結局 1925年 內閣責任制의 改憲으로 臨政體制를 現實에 適用시키려는 것으로 落着되었다.²⁾ (3月30日)

註1 : 臨時政府議政院에서 1922年 人民請願案과 1923年大局刷新案 등이 通過 또는 討議된 것이 그것이다.

註2 : 이 외에도 1925年憲法의 主要特徵은 ①國民으로서의 權利와 義務를 獨立運動家에 限定하고 ②國務領의 任期를 規定하고 ③議定院議員을 間接選舉케 한點등을 들 수 있다.
孫世一,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政治指導體系," 高在旭編, 3.1運動50周年紀念論集(서울:東亞日報社, 1969), pp. p18-p24

그러나 이 內閣責任制憲法이 人物難으로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
자 1927年에는 國務會議制度를 採択한 憲法으로 改正하였다.³⁾

이러한 憲法改定過程에서 唯一黨問題가 提起된 것이다.

記錄에 볼 수 있는 最初의 唯一黨促成에 관한 論議는 1925年
憲法이 議政院에 上程되어 있을 때부터 臨政周邉에서 일고 1926年
8月以後에는 北京, 上海, 廣東, 武漢, 南京에서 韓國唯一獨立黨促成會
가 組織되고⁴⁾ 同年 9月 27日에는 洪震內閣施政方針인 3大綱領의
하나로서 「全民族大黨體를 建立」 한다고까지 하였다.⁵⁾

이러한 運動이 1927年의 憲法으로 總和되었다. 同 憲法 第2
條에서는 大韓民國의 最高權力은 臨時議政院에 있으나 但, 光復運動
者가 大團結한 政黨이 完成될 때는 最高權力은 그 黨에 있는 것
으로 한다 하고 同 49條에서는 憲法의 改正도 同種의 黨이 完成
할 때는 그 黨에서 한다고 規定하였다.⁶⁾

註 3 : 1927年憲法의 特徵은 ①議政院의 地位가 높아졌다. ②議政院
議員選出方法이 1919年憲法으로 復歸했다. ③國家의 最高權力은
光復運動者의 大同政黨에 있다고 規定한 點등이다.

■ 上掲論文, ■ 同面.

註 4 :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독립운동사 제 4 권 (서울 : 독립유공자사업
기금운용위원회, 1972) p. 563.

註 5 : 上海日本總領事館 在警察部第 2 課, 朝鮮民族運動年鑑,
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史

Ⅱ (東京 : 原書房, 1968), p. 323.

註 6 : 前掲 獨立運動史 第 4 권, p. 556.

大韓民國臨時約憲 參照.

또한 1927년에는 國內의 新幹會結成에서 實踐적으로 表現되고
同年 8月에는 滿洲正義府決議에서도 主張되었다.⁷⁾

그러나 이러한 唯一黨運動은 左右翼의 對立으로 1928년에 들어와
서는 急激히 衰退하고 1929년에는 마지막 남은 上海促成會 조차
解體되어 버리고 말았다.

1928년부터는 民族主義者만을 中心으로 한 韓國獨立黨이 結成됨으
로써 唯一黨運動은 失敗로 돌아가고 말았다.⁸⁾

이상과 같은 唯一黨促成運動의 經過를 볼때, 첫째 그 背景이 國際
情勢 및 中國內情勢와 깊은 關聯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唯一黨運動이 일어나던 때는 韓國의 國民代表會議의 分裂로
인한 左右民族聯合戰線의 失敗와는 달리 中國에서는 1924年 共產黨
員의 國民黨에의 個別入黨 決定으로 國共合作이 成功하여 北閥戰爭
에 一旦, 外形上으로는 赫赫한 勝利를 거두고 있을 때였고 「러시아」
革命은 國內外的 危機를 벗어나서 國基가 強固해지고 있었다.

國際的인 影響이 多大했음은 1925年 獨立新聞이 憲法改定에 대하
여 言及한 內容에서 “「소비에트」政府를 建設한 露國 共產黨과
滿清皇帝를 打倒한 中國國民黨”의 前例를 들어 “革命의 大事를
拳합에는 먼저 革命黨員이 그 中軸가 되어 民衆을 支配하고 進行

註 7 :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五 (서울: 探求堂, 1969).

p.90

註 8 : 秋德樹編 資料韓國獨立運動Ⅱ (서울: 延世大學校出版部, 1972)

pp.63-69 參照.

하는 것* 이라고 主張하였던 점에서도 알 수 있다. 9)

이러한 國際情勢의 影響은 同運動의 失敗에서도 그대로 反映되었다고 보여진다. 즉 臨政의 1927年 憲法이 公布된 한달 후인 3月 24日의 南京事件을 契機로 中國의 國共合作은 깨어지고 國民黨과 共產黨은 敵對關係로 變하였다.

이후 唯一黨促成運動은 急激히 衰退하고 內部的 軋轢關係가 露出되었던 것이다. 10)

둘째, 同運動에 있어서의 左派의 戰略戰術의 性格에 있어서 이러한 國際的인 影響을 많이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1922年 12月 「콤민테른」으로 부터 高麗共產黨의 解散命令을 받은 共產主義者들중 骨髄分子는 「콤민테른」의 直屬機關(꼬르부로, 오르코부로)에서 國內共產黨建設에 努力하고 있었지만 上海臨政周辺의 共產主義者들은 國民代表會議 이후부터는 인식해진 蘇聯 및 「콤민테른」의 문돈에 목을 졸라매일 수 밖에 없었다. 11)

따라서, 蘇聯 및 「콤민테른」의 方針에 불충실함으로써 招來한 過去의 쓰라린 經驗을 알고 있는 共產主義者들은 韓國獨立運動의 內部的 現實性보다는 蘇聯 및 中國의 共產黨에 더 많은 信心을 가지게 된 것이다.

註 9 : 獨立新聞, 1925年 3月 23日, 前掲 獨立運動史, p. 561에서 再引用

註 10 : 前掲 朝鮮民族運動年鑑 pp. 332-355 參照

註 11 : 金俊燁, 金昌順, 韓國共產主義運動史 I (서울 : 高麗大學校出版部, 1967), pp. 371-440 參照

특히 中國에 있어서는 國共分裂後 陳獨秀의 '右翼妥協主義'의 反動으로 이른바 '左翼偏向主義'나 '左翼모험주의'의 革命路線이 판을 치게 됐다. 이러한 國際共產主義運動속에서 韓國共產主義者들의 外向性은 同國際勢力에의 無條件 追隨 내지는 強硬路線을 取하게 되고 그러한 立場에서는 當然히 民族統一戰線形成의 重要性이 低下하기 마련이었다.

上海 共產主義團體中 가장 活潑한 活動을 하고 있던 「在中國韓人青年同盟上海支部」는 1929年 7월에 發表한 檄文에서 '全世界 被壓迫民族의 피로서 싸우는 諸君의 祖國 소비에트러시아'는 '帝國主義強盜群의 武力的 包圍에 直面'하였다고 悲憤絶叫하고 있는 점¹²⁾은 그러한 共產主義者의 性格을 잘 表現해 주고 있다.

이러한 共產主義者의 獨立運動上에서의 非民族的 立場에 대해서 民族陣營은 '假露人을 肅清撲滅하라' (1928年 8月 25日 韓國丙寅義勇隊)고 宣傳하는가 하면 青年同盟員 賣母換祖事件 批判會를 열고 共產主義者의 非行을 暴露, 糾彈하였다.

따라서 세째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唯一黨促成運動過程에서는 民族主義者가 共產主義에 대한 認識을 分明히 하고 民族主義政黨을 組織함으로써 諸政黨이 發生하는 歷史的 契機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즉 1926~7년의 中國北伐時代에 滿洲地方의 韓人自治機關 正義

註 12 : 前掲 朝鮮民族運動年鑑, pp. 348-349.

府를 中心으로 結成된 朝鮮革命黨 및 南京의 韓國革命黨, 1928年의 上海의 韓國獨立黨과 北滿을 中心으로 組織된 上海와 같은 이름의 韓國獨立黨이 그것이다. 13)

이와같이 亂立하게 된 政黨은 이제 또 統合의 必要性을 더욱 絶실하게 한 것이다.

(2) 民族革命黨으로의 統合과 分裂

唯一黨運動失敗의 余波로 1920年代末부터 前記한 民族主義諸政黨이 組織되고 1920年代初에는 活潑한 活動이 展露되고 있을 때 共產主義團體로는 中國共產黨韓人支部, 上海韓人反帝同盟, 中國革命互濟會上海韓人分會 上海韓人쓰비에트友好會등이 있었고 14) 外形으로는 民族主義團體이나 實體는 共產主義分子로 構成된 義烈團이 있었다.

義烈團을 除外한 他團體는 거의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組織된 데다 콰민테른의 所謂 一國一黨原則에 依하여 中國共產黨과 密結되어 있고 臨政을 否定하는 것은 勿論 民族主義陣營과는 거의 關係를 갖지 않았다. 15)

그러나 義烈團만은 活動內容이나 性格에 있어서 달랐다.

註 13 : 秋憲樹編, 前掲書, pp.62-80 및 前掲 독립운동사, p. 582 參照

註 14 : 村田左文, 上海及南京方面ニ於ケル 朝鮮人ノ思想狀況, 金正柱編 朝鮮統治史料 第十卷 (東京: 韓國史料研究所, 1971), pp.868~69 및 前掲 朝鮮獨立運動年鑑, pp.354-71 參照

註 15 : 上掲兩書, 同面參照.

義烈團도 원래 1919年 金元鳳(一名 金若山) 등 13名에 의해
서 組織된 이래 1929年頃 解体될 때까지 日本官吏의 暗殺과 重
要施設의 破壞등 테러 活動을 主로 한 團體이다. 義烈團의 指導者
였던 金元鳳은 反日테러의 效果에 대한 懷疑를 품고 同團을 解体
한 후 左傾하여 共產主義活動과 革命鬪士養成에 注力하였다.

그러다가 1931年 滿州事變이 發生하자 南京에서 義烈團을 復活
시키고 表面上으로는 共産黨과 關聯이 없는 듯이 하면서 中韓合作
反滿反日工作을 力說하였다.

金元鳳은 黃浦軍官學校出身으로 國民政府內에 知名人士가 많아
1932年에는 中國軍事委員會의 承認과 中國國民黨要人の 援助를 받
아 韓人軍官學校를 設立하고 同學校를 通해서 養成된 革命鬪士를
中心으로 左派를 糾合하여 義烈團의 勢力은 急激히 增大하였다. 16)

이에 反해서 民族主義陣營은 活動資金難과 分裂로 効果的인 活動
을 展開하기 어려웠는데다 滿洲事變後 日帝의 中國侵略強化와 尹奉
吉義擧에 대한 兇惡的인 보복으로 避亂과 移轉, 被逮등 새로운 試
練을 겪게 된다.

여기에 紛亂을 止揚하고 各團體의 行動統一을 期하자는 要請이
높아지고 이러한 要請에 따라 義烈團의 主導下에 1932年 11月
結成된 것이 韓國對日戰線統一同盟이다. 이 同盟에는 金元鳳의 義烈
團과 對立이 심했던 金九의 韓國愛國團을 除外한 韓國光復同志會

註 16 : 金正明編, 前掲書 pp. 517-18.

韓國獨立黨 朝鮮革命黨 義烈團 韓國革命黨 등의 代表가 參與하였다. 17)

그러나 對日戰線統一同盟은 그 이름과는 달리 各團體의 連絡機關의 役割밖 에 하지 못하고 實質的인 勢力을 組織하지 못하였다.

이에 同同盟執行委員會는 單一大黨組織을 위한 積極的인 活動을 展開하여 결국 1935年 6月 20日에는 大同團結을 위한 革命團體代表大會가 南京에서 開催되었다. 18) 여기에 參席한 代表는 朝鮮革命黨, 義烈團, 韓國獨立黨 新韓獨立黨 大韓獨立黨 및 뉴욕 大韓人僑民團, 美洲國民會, 하와이國民會, 하와이革命同志會 등 9個團體였다. 19)

同會議는 豫備會議을 거쳐 同月 29日 本會議에 들어가 7月 4日에는 單一大黨創立代表大會를 거친 다음 그 익일에는 民族革命黨 結黨式을 가졌다. 20) 新黨創立과 함께 이에 贊同한 朝鮮革命黨, 義烈團, 韓國獨立黨, 新韓獨立黨, 大韓獨立黨과 韓國對日戰線統一同盟은 解体宣言을 發表하였다.

註 17 : 洪永道編, 韓國獨立運動史 (서울: 愛國同志援護會, 1956),

p.370 및 金正明編 前揭書, p.513.

註 18 : 前揭 독립운동사 제 4 권, p.733.

註 19 : 上揭書, 同面

: 이때 參席한 代表者는 다음과 같다.

義烈團 金元鳳, 陳義路

韓國獨立黨 崔錫淳, 양기탁, 趙素昂

朝鮮革命黨 崔東午, 金學奎

新韓獨立黨 李青天, 申翼熙, 尹奇燮,

大韓獨立黨 李青天, 申翼熙, 金奎植이 위임받고 參席

註 20 : 參考文件은 上揭書 pp.733-44 參照

이리하여 新黨이 創立되고 이어서 組織을 整備, 完了하였다.

新黨은 創立되었지만 結成過程에서부터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였다.

그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臨政과의 關係에서 오는 問題이다.

本節 (1)項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新約憲 (1927年 憲法) 에는 臨政의 最高權力은 議政院에 있으나 光復運動家가 大團結한 黨이 完成될 때는 그 黨에 國家權力이 있는 것으로 한다 하였고 憲法 改定도 그 黨에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新黨運動은 어떤 面에서나 名分이 있었다.

그러나 民族革命黨은 政府方針이 아니라 臨政과는 別個로 組織된 것이다. 事實 1931年以來 거의 機能을 발휘하지 못했던 臨政은 1934年에 들어서 若干 整備를 하였으나 新黨運動이 具體적으로 本格化하자 在任 7名의 國務委員中 梁基鐸, 崔東午, 柳東悅, 趙素昂, 金奎植 등 5名이나 臨政에 辭表를 提出하고 新黨結成에 參與하였다. 21) 新黨이 생기면 議政院의 權限을 代身하는 名分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事實 民族革命黨 創立決議文 第2項에는 '臨時政府의 憲法을 改定할 것' 이란 것이 있고 黨綱 第2項에도 '封建勢力 및 日帝反革命勢力을 肅清하여 民主集權의 政權을 樹立' 한다는 明文이 있었다. 22)

그런데 宋秉祚, 趙宛九, 車利錫 등은 新黨運動을 反對하고 臨政을

註 21 : 前掲 獨立運動史, 제 4 권, p. 646.

註 22 : 上掲書, pp. 647 ~ 48.

을 死守하고 있었고, 民族主義勢力中 가장 큰 勢力인 金九派도 新
黨에 參與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新黨勞動者들과는 對立關係에 능
여 있었다. 23)

여기에 新黨 民族革命黨의 限界性和 問題點이 있었다.

이러한 問題點은 民族革命黨이 結成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露呈되
었다.

즉 金元鳳을 中心으로 하는 義烈團系가 新黨의 實權을 掌握하자
9월에 이미 非義烈團系에서 反撥하고 離脫하였다.

처음 趙素昂등 前韓國獨立黨系의 一部가 離脫하고 (9月) 韓國獨立
黨을 再建하자 10월에 同系列의 殘存勢力이 離脫하여 合勢하고
同月에는 前朝鮮革命黨系列의 脫退動搖가 있었다.

한편 臨政의 死守派와 前韓獨黨에서 新黨에 參與하지 않았던 人
士와 金九系는 臨政을 強化하는 한편 同年 11월에는 韓國國民黨
을 組織하여 臨政의 與黨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자 民族革命黨의 分解는 加速化하여 1936年 2월에는
金元鳳系의 朝鮮民族革命黨 (左派) 과 非金系의 韓國民族革命黨 (右派,
곧 朝鮮革命黨으로 改名) 으로 兩分되고 말았다. 24)

이러한 民族革命黨으로의 左右合作分裂의 過程에 나타난 左派의
戰略 戰術을 보면 合作過程에서 內外情勢 特히 民族障營의 分裂과

註 23 : 上揭書, 同面.

註 24 : 이상 上揭書, pp.723-61 參照.

對立을 巧妙히 利用하여 勢力擴張을 圖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當時 中國의 情勢는 蔣介石이 1931年부터 五次에 걸쳐 共産黨의 이른바 解放區에 대한 '圍攻'을 敢行하여 共産勢力을 궁지에 몰아넣는 徹底한 反共政策을 遂行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 共産黨의 援助는 且齒하고라도 共産主義를 表面에 내세울 수는 到底히 없었다. 金元鳳을 中心으로 한 義烈團系左派는 이러한 情勢를 積極的으로 利用하여 國民黨의 援助를 받아내고 民族陣營을 統合함으로써 同支援에 대한 独占的인 獲得을 노린 것이다.

이러한 戰略下에서 民族陣營을 볼때 左派에게는 참으로 有利한 狀況이었다. 金九는 尹奉吉拳事後 總統 臨政을 떠나 韓人愛國團活動에 注力하고 있었다. 臨政은 分裂과 對立으로 지리멸렬 狀態에 있었다.

이러한 内外의 狀況을 포착한 左派는 民族的 輿望인 獨立運動者의 大同團結을 前面에 내세우고 統合運動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일단 合作에 成功한 左派는 實權을 掌握하고 自派勢力의 擴張·強化와 이데올로기의 固守에 부심하였다.

이러한 左派의 偽裝된 戰略과 戰術은 韓國獨立黨을 再建할 때 趙素昂이 發表한 '黨員同志'라는 pamphlet에 仔細히 暴露하고 있다. 25)

結局 民族革命黨은 1936年 1月の 全党代表大會에서 優勢한 資

註 25 : 金正柱編, 前掲書, pp.758-72 參照.

금을 利用, 金元鳳을 總書記로 한 左派체제로 變形시켜버리고 말았다.

左派가 이와같이 客觀的 情勢 및 民族陣營의 分裂을 틈타 資金 및 組織力을 利用하여 勢力擴大와 實權掌握에 狂奔하였다는 점은 左右合作失敗의 決定的 要素이기는 하나 또 自派가 實權에서 除外될 때는 서슴없이 派黨을 結成하여 派爭을 일삼는 臨政周邊의 獨立運動指導者들의 거의 體質化되어 있는 性格에도 重大한 責任이 있었다.

(3) 中日戰爭과 左右合作運動

1935年의 民族革命黨으로의 左右統合은 全民族的 大同團結體를 構成하는 듯 하였으나 곧 分裂되어 1936年과 1937年前半期の 各派는 自派勢力糾合에 汲汲하고 있었다. 1937年 7月7日 中日戰爭이 勃發하자 韓國獨立運動界는 또 다시 左右統合運動이 일어나게 됐다.

먼저 이 運動過程을 보면,

金九가 이끄는 韓國國民黨 趙素昂등의 再建韓國獨立黨, 民族革命黨에서 反金元鳳派가 分離한 李青天등의 朝鮮革命黨 이 세개의 純民族主義團體는 1937年 7月 會合을 갖고 三派聯合의 宣言書를 發表하고 臨政의 擴大強化를 合議하였다.²⁶⁾ 그리고 同年 8月17日 에는 前記 3黨과 韓人愛國團 및 美洲五團體의 連名으로 韓國光

註 26 : 金正明編, 前揭書, p. 599.

復運動團體의 中日戰局에 대한 宣言²⁷⁾을 發表하고 이어서 韓國光復 運動團體聯合會(光復陳線)를 組織하였다.

한편 金元鳳系의 朝鮮民族革命黨에서는 左翼系의 朝鮮民族解放 運動者同盟, 朝鮮革命者聯盟과 함께 單一大黨을 劃策하고 있었다. 內外情勢가 對日戰線 統一氣運을 造成하고 民族主義系의 金九派가 反金元鳳系를 糾合하려는 기미가 보이자 前記 세개의 左翼團體는 朝鮮民族戰線統一促成會를 組織하고 各方面에 左右統合運動을 展開하면서 韓國光復運動團體聯合會에도 代表를 派遣하여 合流를 提議하였다. 그것이 結局 拒否되자 光復陳線에서 除外된 人士를 總網羅, 11月12日 代表大會를 召集하고 數次의 會議을 거쳐 朝鮮民族戰線聯盟을 結成하였다.²⁸⁾ (12月初 創立宣言發表)

左右兩派는 中日戰爭의 激化와 더불어 中國으로부터 積極的인 支援을²⁹⁾ 받으면서 抗日戰을 展開하였다. 그러면서도 相互 排他的인 勢力擴張에 腐心하고 있었다.

그러나 當時 中國에서는 國共合作으로 全民族이 團結하여 抗日戰에 임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韓國도 民族的 大團結의 要求가 높게 되었다.

註 27 : 上揭書, 同面.

註 28 : 金正明編, 前揭書, pp.606-607.

註 29 : 金九派는 國民政府로부터 每月 2千圓의 資金援助를 받고 金元鳳派는 國民政府外交部 王芃生 및 C.C.團首領 陳果夫로부터 每月 3千圓을 받았다고 한다.

上揭書, p.612 및 p.615 參照.

마침 中国側에서도 韓國獨立運動界의 統一을 慫慂하게 됐다. 즉 蔣介石은 1938年 11月末 金九를, 1939年 1月에는 金元鳳을 招致하여 大同團結을 促求한 것이다. 30)

自体内의 要求와 中国側의 慫慂으로 더이상 排他的 派争을 固執할 수 없게된 兩派는 1939年 1月부터 交渉을 始作하여 同年 5月 10日에는 光復陳線의 指導者 金九와 民族戰線의 金元鳳은 連名으로 過去의 派閥抗爭을 止揚하고 民族的인 總團結을 이룩하여 民族解放의 大業을 完成하고자 한다는 聲明書를 發表하고 自由主義와 資本主義의 路線에 따른 政治綱領을 提示하였다. 31)

同年 7月에 들어서 民族陣營의 韓國國民黨, 韓國獨立黨, 朝鮮革命黨과 共產主義陣營의 朝鮮民族革命黨, 朝鮮民族解放同盟, 朝鮮民族前衛同盟, 朝鮮革命者聯盟의 7黨會議가 열렸다. 會議過程에서 朝鮮民族前衛同盟과 朝鮮革命者聯盟은 單一合同의 合同形式에 反對하고 各團體에 自由立場을 留保하는 所謂 聯盟組織論³²⁾을 主張하여 同會議에 不參함으로써 結局五黨會議가 되었다. (8月 25日)

五黨會議는 同年 9月 全國聯合陳線協會를 組織하고 宣言을 發表하는데 까지 成功하였다.

그러나 곧 内部의 思想的 對立으로 左派인 民族革命黨이 脫退해

註 30 : 前掲 獨立運動史 제 4 권, p.688.

註 31 : 上掲書, 同面

註 32 : 金正明編, 前掲書, pp.641-42의 日本警察資料에 依하면 '青年呼聲'이란 雜誌를 發刊하여 主張하고 있다.

버려 左右統合運動은 失敗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1940年 5月에는 臨政의 中心勢力을 이루었던 純民族主義政黨인 韓國國民黨, 韓國革命黨, 韓國獨立黨만으로 韓國獨立黨을 結成하였다.

이상과 같은 左右合作運動過程을 볼 때 :

첫째, 그 性格은 過去의 合作運動과 差異가 없다.

그러나 數次에 걸친 左右合作試圖와 失敗에도 不拘하고 끊임없이 合作運動이 展開되었다는 점은 아무리 左右間에 思想上的 差異가 甚하고 排他的인 軋轢關係에 있었다해도 民族的 要求인 大同團結體의 構成을 拋棄할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도 固疾의인 派閥性과 思想的 對立은 合作·統一運動을 主導的으로 進行시킬만큼 되지 못하였다. 當時 中國은 中日戰爭으로 韓國人이 團結하여 直接 싸워야 할 절박한 狀況이었고 國內의 政治的 經過도 1936年의 西安事件으로 二次國共合作의 契機를 마련하고 1937年 中日戰爭勃發과 더불어 國共合作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그 政治的으로 類似한 實例를 充分히 經驗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蔣介石에 의한 直接 慫慂이 있자 비로소 左右合作運動은 積極的으로 展開됐던 것이다.

그러한 主體力量의 衰退는 合作運動의 實質的인 內容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卽 合作運動은 이때까지도 臨政밖에서 臨政을 否定하는 左派와 臨政을 支持하는 右派間에 進行된 것이다.

보는側에 따라서는 臨政은 하나의 獨立運動團體에 不過하였든 것이다.

이상에서 論述한 바와 같은 經過와 性格을 갖는 中日戰爭以後의 左右合作運動過程에 나타난 左派의 態度는 1935年 民族革命黨結成 때와 잘 對照된다. 1935年의 경우 形態的으로는 左派는 合作原則을 固守하고 右派가 分離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左派가 共產主義이데올로기를 버릴 수 있다는 이유로³³⁾ 脫退하였다. 그런데 實質的으로 1935年의 경우는 優勢한 組織力과 資金으로 合同, 그것이 곧 左派勢力의 擴大를 意味했지만 이번에는 右派가 優勢하여 合作하게 되면 右派의 路線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合作運動初期에 金元鳳에 대한 思想的인 攻擊이 심하자³⁴⁾ 金은 일종의 社會政策的인 資本主義者로 變身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過去의 經驗을 잘 認識하고 있는 民族主義陣營은 左派의 勢力挽回를 容納하지 않았다.

이와같이 1935年 경우와는 달랐기 때문에 左派의 朝鮮民族前衛同盟과 朝鮮革命者聯盟은 前記한 이른바 聯盟組織論을 主張하여 自派勢力의 保存을 劃策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左派의 戰術은 自身의 勢力이나 이데올로기가 保存될 수 있는 限에서는 民族의 名分에 充實하고 그것이 威脅을 받을 때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消極的인 態度를 보이는 것이다.

註 33 : 前掲 독립운동사 제 4 권, p.691

註 34 : 特히 美洲의 團體로부터 "金元鳳을 共產主義者로 指目하고 共產主義者와의 統一은 反對한다고 하였다" 上掲書, p.688.

2. 臨政下의 左右合作

上海臨政은 1923年 國民代表會議 이후 부터는 하나의 獨立 運動團體와도 같이 活動도 침체한 속에 命脈만을 維持해 오는 형편 이었다. 數次에 걸친 左右合作運動도 臨政밖에서 推進되었다.

이러한 臨政이 1942年에는 活氣를 되찾고 民族運動 最高機關으 로서 名實共히 役割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臨政산하의 光復軍과 左 派의 朝鮮義勇隊가 統合하여 臨政旗幟下에서 奮鬪하고 臨政을 否定 하던 朝鮮民族革命黨등 左派政黨이 臨政을 認定하는 것은 물론 該 政院에 대거 參與하여 1919年 統合政府이래 처음으로 臨政下에서 左右合作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本項에서는 이와같은 臨政下의 左右合作經緯와 性格 및 여기에 나타난 左派의 戰略, 戰術을 보기로 하겠다.

(1) 朝鮮義勇隊의 光復軍編入

臨政은 1937年 光復軍大部隊의 編成을 計劃하였으나 中 日戰爭이 일어나고 日本軍의 中國大陸進擊이 始作되자 同年 鎮江을 거쳐 長沙로 避難하고 1938年에는 廣東을 거쳐 柳州로 1939年 에는 또 다시 綦江으로 避難하는 바람에 當初에 策定했던 軍事予 算마저 臨政要人의 救急費로 流用되고 따라서 同計劃은 原點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35)

이와는 달리 朝鮮民族革命黨을 中心으로 한 左派勢力은 1938年

註 35 : 上掲書, 同面.

10月 日本軍이 武漢三鎮을 強占하고 中國政府가 重慶으로 移轉할 때 抗日戰에 參加할 것을 決議하고 中國軍事委員會의 諒解를 얻어 이미 抗日戰線에 나서 活動을 벌이고 있던 戰地服務團³⁶⁾과 合同하여 朝鮮義勇隊를 組織하였다.

朝鮮義勇隊는 中國側의 援助를 받아 華北 및 中國中央部를 中心으로 政治工作員을 派遣하여 日本軍의 後方교란作戰을 벌이는 등 相當한 業績을 올리고 있었다.³⁷⁾ 그러나 이 朝鮮義勇隊는 臨政과 關係를 갖지 않는 朝鮮民族革命黨의 主管下에 活動하였으므로 이와 對立的인 關係에 있던 臨政側에 주는 刺戟은 적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臨政의 唯一與黨인 韓國獨立黨은 1940年 5月 結成하자 光復軍 編成을 黨策으로 내걸고 光復軍設置計劃을 推進하였다.³⁸⁾

먼저 光復軍計劃大綱을 作成하여 韓國獨立黨中央執行委員長 金九의

註 36 : 崔錫淳等이 朝鮮民族革命黨으로부터 脫退하여 組織한 것이다. 金若山등이 中國軍事委員會에 朝鮮義勇隊 結成計劃을 提示한 바 同委員會로부터 “朝鮮革命運動團體全部를 包容할 것 같은 許可한다.”는 回答을 받고 戰時服務團의 朝鮮民族革命黨 服歸를 慫慂하였는데 마침 同團도 活動資金에 困難을 받고 있었는데다 中國側의 統一戰線形成 希望이 表示되었으므로 即時 復歸한 것이다.

金正明編, 前掲書, p.746.

註 37 : 上掲書, p.748.

註 38 : 前掲 독립운동사, p.884.

名義로 中国国民党 組織部長 朱驥先을 통해서 蔣介石에게 提議하였다. 39) 그러나 中国側의 遲延으로 同計劃의 進行을 볼 수는 없었다.

그동안 또 綦江에서 重慶에 移轉한 臨政은 韓國獨立黨主管의 軍設立計劃을 臨政主管으로 바꾸고 于先 軍을 設立한 다음 中国과 交渉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9月 15日에는 光復軍宣言文을 發表하고 總司令部部署를 定하여 發表하는 한편 臨政名義의 布告文을 發表하여 同胞들의 聲援을 要請하였다. 그리고 그 以後에는 盛大한 光復軍總司令部成立典禮를 舉行하고 同年 11月 總司令部的 西安移轉과 함께 各支隊의 編成과 担当活動區域을 決定하였다. 이라하여 1941年 初에는 各支隊의 活動이 展開되었다. 40)

그러나 中国側은 臨政의 交渉提議에 消極적인 態度로 反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中国軍事委員會는 各處에 提示하여 光復軍의 組織活動을 禁止하는가 하면 光復軍의 參謀와 政訓關係人員을 파견하겠다는 등 干涉的으로 나왔다. 中国側의 態度는 朝鮮義勇隊가 있으니 따로 光復軍을 組織할 必要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中国과의 關係는 결국 中国側의 光復軍이 遵守해야 할 9項의 活動準繩의 通告와 이에 對한 臨政의 受諾으로 一段落되었

註 39 : 上揭書, 同面.

註 40 : 上揭書, p.885 ~ p.915 參照.

으나⁴¹⁾ 朝鮮義勇隊와 併存하는데서 오는 問題點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韓國光復軍의 創設過程에서 提起된 問題點은 주로 朝鮮義勇隊와의 對立때문에 오는 것이었다.

또한 中國의 實務院에서도 韓國의 獨立軍이 全然 別個의 兩 部隊로 存在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難處한 일이 있을것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1941年 12月 8日에는 日本의 진주만 습격으로 太平洋戰爭이 勃發하여 東洋에서의 第二次世界大戰이 本格化했으므로 左右軍隊의 統合은 絶對적으로 要求되었다.

이러한 大勢에 朝鮮義勇隊는 1942年 三·一節記念 告中國同胞書에서 臨政에 對하여 빨리 臨時議會를 열어 各革命集團이 臨政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臨政을 朝鮮革命의 最高 統一機構가 되게 하라고 要求하여⁴²⁾ 과거의 臨政否認을 止揚하고 4月 臨時國務會議에서는 朝鮮義勇隊·光復軍合編案을 決議하여 獨立軍의 左右合作을 위한 內的 條件을 完了하였다. 이러한 左右軍隊의 合作을 위한 內的 準備를 應援해오던 中國軍事委員會는 同年 5月 21日 朝鮮義勇隊의 解散과 光復軍編入을 命令하고 左派의

註 41 : 이준승은 光復軍에 대하여 몹시 까다로운 制約을 加하는 것이어서 臨政關係者들은 그 수락문제를 놓고 突反兩論으로 갈라졌으나 1941年 11月 19日 臨時國務會議의 決議로 결국 수락되었다. 上揭書, 同面參照.

註 42 : 秋窓樹編, 資料韓國獨立運動Ⅲ (서울: 延大出版部, 1973), pp.110 ~ 112

指導者 金元鳳을 統合光復軍의 副司領으로 任命함으로써 左右合作을 實際化하였다. 43) 同年 7月에는 朝鮮義勇隊가 解体宣言을 하고 12月 5日에는 金元鳳이 光復軍의 第一支隊長 副司令官으로 正式 就任하여 44) 光復軍은 名實共히 左右合作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2) 政党團體의 合作

1940年代에 들어 聯合國·樞軸國의 戰爭 및 中日戰爭이 激化함에 따라 中國內 韓國獨立運動도 活氣를 띠어 前述한 바와 같이 左右陣營內의 統合, 朝鮮義勇隊의 活動, 光復軍의 創設, 臨政의 移轉強化등 內外情勢가 激變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에 臨政은 1927年 이래 維持되어 온 體制를 戰時體制로 整備하기 위해서 1940年 10月에는 憲法(臨時約憲)을 改定하여 從前 國務會議 自体에서 互選하던 主席을 臨時議政院에서 選舉케 하고 새로이 國軍을 總監하고 對內外的으로 政府를 代表할 權限을 부여하였다. 또한 議政院에도 國務委員會와 主席을 選出 또는 免職시키는 權限을 부여하여 行政府의 獨走를 견제할려 하였다.

그리고선 金九를 主席으로 하는 行政府를 構成하고 1941年 11月 25日에는 建國綱領을 制定 公布하였는데 여기에서 종래 韓國獨立黨

註 43 : 上揭書, p.112.

註 44 : 金若山은 1944年 6月1日 同職을 辭任하였다.

前掲 韓國獨立運動史 3, p.303.

註 45 : 大韓民國臨時約憲 第10條 및 第14條 前掲 韓國獨立運動史 2, pp.20~23.

및 臨政의 政治理念인 三均主義를 具体化시키는 方案을 提示하였다.

이중에서도 特別히 大生産機關과 土地, 鎭山, 漁業, 運輸事業등을 모두 國有로 하고 土地分給이나 生活問題에 있어서 極貧者 優先待遇를 내세웠다. 46)

이와 같은 臨政体制의 整備·強化와 建國綱領에 의한 革命的 方案提示는 思想的 對立을 緩和시키는 臨政内部의 變化를 意味했다.

그러나 事實上 臨政을 完全히 掌握하고 있는 韓獨黨은 1941年 제 33回 議政院會議까지도 左派 혹은 여타勢力의 臨政參與에 대해서 排他的이었다. 이러한 態度는 다음과 같은 事實에서도 特徵적으로 나타났다.

즉 33回 議政院會議에서 外信記者와의 인터뷰에서 臨政의 欠陷을 指摘하고 他勢力의 議政院參與에 協助한 臨政院議長 金明潛을 彈劾한 것 46) 과 새로이 當選된 27名의 議員을 除名 処分해 버린 것이 그것이다. 議員 27명이라면 同會議 出席議員보다 6名이나

註 46 : 上揭書, pp.29-33 參照.

註 46 : 彈劾理由는 三項으로 되어있는데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 ① 議長의 職權을 넘어서 臨時政府와 議政院의 欠點을 外國新聞記者에게 말하여 同機關이 極히 不完全한듯이 外國人에게 認識토록 하였다.
- ② 選舉에 干與하여 行政機關의 行政權을 侵害하였다.
- ③ 國家機關을 經由하지 않고 自意로 金鉄을 變通하여 使用함으로써 行政機關의 財政行政을 파괴하였다.

前揭韓國獨立運動史 I, pp.140-41.

많고 在籍議員 26名보다도 한명이 많은 數이다. 47)

이에 대해서 左派系 朝鮮民族革命黨은 臨政에 대해서 從來의 不
関主義를 拋棄하고 宣言을 發表하여 臨政支持는 勿論 參與의 方針
을 세우고 臨政을 朝鮮民族全體의 機構로서 補充할 것은 臨政當局
者에게 要求하였다. 48) 그리고 또 朝鮮前義勇隊의 前記한 1942年
三·一節記念宣言에서도 全民族統一機構로서의 補充을 要求한 것이다.

이와같이 内外의 臨政強化와 補充要求에 臨政은 1942年 8月
4日 第35次 國務會議에서 臨時議政院 選舉規定을 通過시켜 左派
의 臨政參與를 對備하고 49) 10月 選舉를 치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同月 24日의 第34회 議政院會議에는 6名의 朝鮮民族
革命黨과 5名의 기타左派를 포함한 23名의 새로이 選出된 23名
의 議員이 議政院에 參與하였다. 50)

이후 左右翼은 臨政을 中心으로 相互對立을 보이면서도 合作하여
1945年 日帝로부터 祖國解放을 맞이할 때까지 對日鬭爭을 展開하
였다.

(3) 合作의 性格 및 左派戰略의 變化

臨政下로의 左右合作은 過去의 合作運動과 性格이 다르다.

註 47 : 上揭書, 同面參照.

48 : 朝鮮民族革命黨 第六次代表大會宣言

秋憲樹編 前揭資料韓國獨立運動 2, pp.204-211.

49 : 前揭 韓國獨立運動史資料 I, p.451.

50 : 前揭獨立運動史 4卷 P.671.

첫째 過去の 合作運動은 光復運動의 大同團結體라는 名分下에 1919年의 統合政府에서의 合作이외에는 全部가 臨政과는 關係없이 臨政밖에서 推進되었다. 그러나 1942年의 合作은 臨政으로 臨政의 作威와 權能을 認定한 土臺에서 左右合作이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그러면서도 또 過去の 合作이 左右派를 解消한 土臺에서 完全統合을 企圖했던데 反해서 이번에는 元來의 各組織을 維持한 체로 臨政傘下에 合作하게 된 것이다. 光復軍으로의 合作境遇 朝鮮義勇隊를 解体하고 光復軍에 編入되었다고 하지만 實質적으로는 固有의 組織은 保有한 체 이름만 光復軍編制를 따른 것이다.

세째의 特徵은 左派戰略의 大幅的인 轉換에 의해서 合作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右翼인 韓國獨立黨 政策에로의 左派吸收을 意味했다. 그것은 從來 臨政을 否定해오던 左派가 韓獨黨의 独占體인 臨政에 參與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와같이 左派의 戰略이 轉換하여 臨政으로의 合作이 可能했던 要因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 國際情勢의 變化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朝鮮民族革命黨의 宣稱에도 分明하면서도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

즉 1941年 12月 10日 (太平洋戰爭勃發 2日後) 朝鮮民族革命黨 第六次全黨代表大會宣言⁵¹⁾에서 朝鮮民族革命黨은 臨政問題에 대해서
① 國土가 아직 光復되지 않았으므로 實質적으로 人民이 없는 海

註 51 : 秘憲樹編 前掲 資料韓國獨立運動 2, pp.204-211.

外에서 臨政은 그 政權을 實施할 수 없다. ② 各國이 아직 臨政을 援助 혹은 承認하지 않고 있다. ③ 臨政은 各革命團體나 혹은 國內人民의 民主的 合法選舉에 依거해서 組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臨政을 認定하지 않고 不關主義를 取해 왔다고 하였다. 52)

그러나 内外의 情勢가 變하여 同年 5月 第五期第七次中央會議에서 從來의 不關主義를 拋棄하고 臨政에 參加하기로 決定했다고 하였는데 53) 그 内外의 情勢變化란 二次大戰이 激化함에 따라 폴란드, 네델란드, 仏蘭西 등의 反파시스트 流亡政府가 樹立되고 各聯合國은 그들을 承認·援助한 實例가 있으므로 韓國臨政도 承認을 받을 希望을 가지게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各地의 韓人들이 聯合國側에 加担하여 反파시스트戰爭을 遂行하고 있으므로 臨時政府를 擴大·強化하여 韓國革命大衆의 最高戰鬪指揮本部를 삼을 必要가 생겼다는 것이다. 54)

當時 國際情勢의 變化는 항상 原則을 내세우면서도 情勢에 敏感한 左派로 하여금 政策轉換을 하게 하는 充分한 客觀的 要因이 되었다.

둘째로 指摘할 수 있는 要因은 情勢의 變化가 內的으로 具體化됨으로서 惹起된 問題인데 朝鮮義勇隊가 韓國獨立運動過程에서 차지하는 位置가 微妙했다는 點에 있다.

註 52 : 上揭書, p.211.

註 53 : 上揭書, 同面.

註 54 : 上揭書, 同面.

中日戰爭의 激化와 더불어 中國內 韓國獨立運動團體는 軍組織과 對日戰線에서 參加가 當面 目標였다. 그래서 左右派를 莫論하고 軍隊編成을 서둘렀고 前述한 바와 같이 1938년에는 朝鮮義勇隊가 組織되어 광복할 성과를 올리고 있었고 1941년에는 臨政이 韓國 光復軍을 組織하였다.

그런데 이에 中國의 承認과 援助下에 朝鮮義勇隊가 組織되어 活動하고 있었으므로 光復軍의 創設은 難關에 逢着하였다. 이렇게 된자 對立관계에 있던 朝鮮義勇隊의 性格을 問題로 삼아 攻擊하였다. 그 攻擊內容인즉 ① 朝鮮義勇隊는 國際的 性質을 띤 單純한 義勇隊에 不過하고 國軍이라고 할 수 없다. ② 朝鮮義勇隊는 中國 軍事委員會政治部에 屬해 있고 韓國政府에 屬한 것이 아니다.

고로 朝鮮民族의 獨立性을 代表할 수 없다. ③ 朝鮮義勇隊는 非武裝의 宣傳團體에 不過하다는 것이다. 55)

이러한 攻擊에 대해서 朝鮮義勇隊側에서는 解明을 하였고 그러한 攻擊은 政治的 意圖에서 나온 것으로 事實상은 問題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외로 주는 影響은 적지 않았다. 56)

註 55 : 韓國獨立黨機關報 韓民 第 22 号, 如松, "論朝鮮義勇隊在革命中的地位", 朝鮮義勇隊通訊 第三七期에서 再引用.

秋憲樹編 前掲資料韓國獨立運動 3, p.60.

56 : "上掲論文", 上掲書, pp.59-64.

그것이 論理나 現實에 있어서 根柢가 아무리 희박하다 하더라도 臨政下에 韓國 光復軍이 組織된 後는 事實이 그러한 것으로 認識되기 쉬웠다. 즉 光復軍이 있는데 朝鮮義勇隊가 全然 別個로 組織되어 活動한다는 것은 그 名分이 서지 않았다.

여기에 光復運動團體의 統合, 團結을 主張해온 左派로서 統合에 應하지 않을 수 없는 必然性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左派의 戰略變化를 不可避하게 하는 內外的 條件이 成熟되었지만 統合을 主体的으로 遂行하기에는 너무나 固疾화된 左右의 對立과 軋轢이 남아 있었다.

이러한 難關을 비교적 容易하게 克服할 수 있었던 점은, 臨政의 光復軍이나 左派의 朝鮮義勇隊가 다같이 中國의 指揮와 監督을 받게 됨으로써 統合을 要求하는 直接的인 命令에 服從치 않을 수 없었던 狀況에 있다.

朝鮮義勇隊가 臨政下의 光復軍으로 編入된 以上 朝鮮民族革命黨을 비롯한 左派政黨이 繼續 臨政을 否定하고 參與하지 않는다면 自派軍隊의 喪失을 意味하기 때문이다.

第五章 結 論

이상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臨政과 關聯을 맺는 左右合作問題는 臨政의 全期間을 통하여 前後 6次에 걸쳐 提起 되었다. 그 事의 特徵的 性格에 따라 세가지 範疇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다.

첫째의 範疇는 左右翼이 相互間에 分明히 認識하지 못한 土台에서 臨政에 統合된 境遇로 1919年 上海臨政이 統合政府로 出發한 때로부터 1921年 1月 左派의 臨政脫落으로 左右가 分裂된 時期가 이에 屬한다. 이 合作·分裂의 過程이 갖는 歷史的 意義는 臨政內 左派의 生成, 左派內의 分裂, 民族主義陣營의 左派와 對立하는 立場으로서의 自己意識, 臨政의 限界性 露出로 改造의 必要性 提起 등에 있다.

두째의 範疇는 國民代表會議→唯一黨促成運動→民族革命黨으로서의 統合과 分裂→中·日戰爭後 左右合作運動으로 이어지는 1920年代 初부터 1940年代初에 이르는 長久한 時期가 이에 屬한다. 이 時期의 主要特性은 孫聯共產黨이나 中國國民黨과 같은 民族大團結體의 形成을 三目標로 左右合作運動이 展開되었다는 점이다. 臨政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右派는 大體로 臨政을 支持하면서도 大同團結體에 의한 臨政機能強化 및 獨立運動의 刷新을 企圖하였고 左派는 臨政을 否定내지 徹底한 改造를 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臨政 즉 獨立運動 最高機關問題는 새로이 結成되는 獨立運動家의 大同團結體에서 決定되어야 한다는 立場을 取하였다.

세째의 範疇는 1942年이후의 즉 臨政內에 左翼政黨·團體가 參與

하는 時期이다. 이때의 特徵은 第一의 範疇과 같이 臨政下에서 左右翼이 合作하는 것이나 다른점은 各自의 組織과 政治理念을 表現하는 政黨이, 相互競合하면서 合作하는 一種의 國家내 政黨政治의 樣相을 띠는 점이다.

이 세時期는 各各 民族獨立運動史에 있어서 段階를 意味할 뿐만 아니라 世界史의 흐름을 反映하고 있고 中國內情勢와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第一次世界大戰後 새로운 世界秩序形成期가 곧 第一次合作期間으로 本質的으로는 如何間 外形的으로만은 獨立의 可能性이 이루어졌던 때이고 아울러 第6次의 合作이 이루어진 때는 기존 世界秩序의 破綻이 臨迫해오고 있는 때였다. 分裂과 派爭이 激蕩했던 時期 즉 臨政이 가장 沈滯했던 時期는 第一次大戰後에 再編成된 國際秩序가 安定化를 이룩했을 때이다. 또한 中國內的 情勢變化는 左右合作運動에 그대로 反映되고 있다. 1924年의 第一次國共合作과 27年의 分裂, 1930年代初 蔣介石의 對共包圍討伐作戰, 1937年의 第二次國共合作등은 臨政下左右合作運動의 展開過程과 一致하고 있다.

勿論 이러한 경향은 獨立運動의 現實的 根拠地가 中國이란데서 오는 不可避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主體力量의 成熟에 의한 合作分裂이라기 보다는 國際情勢의 變化가 거의 絶對的인 合作·分裂의 要因으로 作用했다는 점은 單純한 日帝治下 獨立運動期間의 問題만은 아니다. 그것은 韓國左右問題의 歷史的 性格 및 傳統의 問題라 보여진다.

여하튼 臨政下의 左右合作分裂의 經過는 國際情勢 및 中國內情
과 密接한 關聯을 가지면서 성격은 달랐다.

이러한 合作·分裂의 過程은 當然히 左派性格의 變化를 隨伴하였
다. 初期의 左派는 民族的 共產主義者가 大部分이었다고 할 수
있다. 深刻한 理論鬭爭과 政治鬭爭을 通하여 成長한 共產主義者라
기 보다는 民族獨立運動에 主目標이 있었고 共產主義는 그 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方便에 不過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共產
主義의 原則을 充分히 認識하지 못하고 있었고 内部的인 派爭을
克服할 줄도 몰랐다. 이러한 深刻한 理論鬭爭과 權力鬭爭의 經驗
을 가지지 못한 幼弱한 韓國의 共產主義者들은 高度의 政治的 技
術을 要하는 左右合作問題에 곧 부닥치게 된 것이다. 歷史性이
 짙은 左派의 性格은 國民代表會議에서 破局的인 樣相으로 表現되었
다. 「콤민테른」의 民族統一戰線 形成에 대한 明確하고 具體的인
路線提示가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左派는 그를 忠實히 實踐에 옮긴
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 自身들에 의해서 먼저 그 指示를 유린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같은 當時 韓國獨立運動內 左派인
共產主義者들의 幼弱性은 蘇聯의 眞人共產主義黨의 建設을 위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現實的인 利用에 汲汲한 政策-時急한 反帝戰線의
形成-으로 더욱 그 變態的 樣相을 띠게 하고 結局 破綻的인 局面에
몰아넣고 말았다.

어쨌든 初期 左派인 共產主義者들은 意識的인 面에서 低級하고
實踐面에서 經驗이 不足한 일종의 民族共產主義의 機關主義分子들이
었다.

國民代表會議失敗後 蘇聯 및 「콤민테른」의 政策이 國內共產黨建設에 主力하여 臨政을 中心한 聯合戰線形成보다는 共產黨에 의한 民族問題解決에 主力하게 됨으로써 臨政周邊의 左派는 二部類로 나뉘어지게 된다. 한 部類는 過去의 誤謬를 批判하고 一國一黨主義의 國際路線에 따라 中國共產黨에 吸收되어 活動하는 者들이고, 다른 한 部類는 民族陣營의 左派로 남아 있는 者들이다.

前者는 臨政과는 거의 關係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臨政下의 左右合作・分裂의 問題外의 範疇에 屬한다.

그런데 이들의 發生契機는 共產主義思想의 徹底한 受容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民族獨立問題는 共產主義理念達成의 한 過程에 不過하다.

그러나 後者에게 있어서는 이점이 모호하게 나타난다. 前者와의 關係 中國內 情勢, 國際情勢 蘇聯 및 中國共產黨과의 關係 自體內의 派閥關係 右派와의 協力 關係等에 의해서 自己表現樣式을 달리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民族陣營內의 左派라는 現實的 條件은 그의 性格을 規定하여 後期에 들어서는 民族陣營內에 土着化하는 傾向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結局 民族陣營 즉 右派의 勝利를 容易하게 해주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臨政 및 右翼陣營이 左派 「이데올로기」를 反對하는 國民黨 勢力圈內에 있는 限 左派 「이데올로기」는 合法性이 否定되지는 않는다손 치더라도 많은 制約을 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共產主義者란 攻擊에 대해서 自身을 防禦하

지 않으면 안될 立場에 놓이게 되고 따라서 右派는 이들의 路線을 右派쪽으로 接近시키는 것이 可能했다.

이와 같이 左派가 不利한 狀況에서 右派의 理念에 妥協하는 脆弱性을 가진 것은 當時 海外에서의 獨立運動으로 現實的인 統治人민을 가지지 못한 与件에 보다 根本的인 理由가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左派의 「이데올로기」 共產主義는 一定한 社会의 階級的 對立을 前提로 하고 그것을 背景으로 해서 이른바 「프로레타리아」의 利益을 代弁하는 政綱政策을 내걸고 그렇게 함으로써 「프로레타리아」로 부터 支持를 받을 때 생명력을 가진다. 그러나 韓國 共產主義의 發生契機는 前述한 바 있드시, 그들이 共產主義가 支配하는 蘇聯에서 獨立運動을 했던 關係로 혹은 蘇聯의 現實的인 利用을 위한 包摂에 의해서 또는 思想的 受容에 敏感한 知識人들의 「담스」主義 導入등이다.

이와같이 해외의 韓國공산주의는 階級社会의 切實한 社会問題와 直結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階級的 基盤에 連結시켜 發展시킬 수도 없었다.

祖國을 빼앗기고 他國에 流浪하여 依存的 生活을 하고 있는 民族에게 「브르좌지」 搾取者 抑壓者가 있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左派의 「이데올로기」 共產主義는 社会革命의 切實한 要求에서 提起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觀念上의 問題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 左派의 脆弱性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左派가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를 信奉하는 이상 歴

史上의 모든 共產主義集團이 가지는 戰略·戰術의 初期的 形態를 가지고 있었고 左派의 性格變化와 함께 그 表現하는 樣式도 달리 하였다.

臨政下 左右合作에 있어서의 左派의 態度는 ①國際情勢 ②國際依存勢力과의 關係 ③自体内的 派閥關係 ④右派와의 勢力關係에 따라 支配되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整理해 볼 수가 있다.

1) 國際情勢가 左派에 有利하게 展開될 때는 積極적으로 右派와의 合作을 試圖하나 不利할 때는 妥協할 수 없는 原則만을 提示하고 自派勢力의 保存내지 擴張에 努力한다. 이때는 「이데올로기」의 原則성이 特히 強調된다.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同一性에 立脚한 結合만이 그들을 끝까지 지켜 준다고 믿는 그들 思想의 論理的 歸結이 기도하다. 第1次 国共合作失敗後 中国戰爭 發勃時까지 特히 滿洲事變以前까지의 左派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硬直化 現象을 보여 주었고 第1次 国共合作의 成功, 中国戰爭 發勃과 第2次 国共合作의 成功, 太平洋戰爭의 發勃등은 左派에게 有利한 情勢로 把握 積極적인 左右合作을 推進하는 態度등에서 그 實例를 찾을 수 있다.

2) 強力한 外勢에 排他的으로 關係를 맺고 있는 限 強硬한 協商態度를 보인다. 國民代表會議에 있어서 蘇聯의 支援을 確信하고 있던 경우(사실을 잘못 認識하고 있었지만)와 朝鮮民族革命黨과 朝鮮義勇隊가 中國政府로부터 独占的 支援을 받고 있을 때의 左派의 態度가 이를 例証해 준다.

그러나 일단 그러한 關係성이 깨질 때는 虛弱性을 들어내고

한다. 前記 前者의 例에 있어서 創造派의 이른 바 「韓國政府」가 蘇聯으로 부터 支援을 拒絕당하자 곧 形態조차 없어져 버렸고 後者의 경우 韓國獨立軍이 結成되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正統性을 가지게 되자 自己 矛盾的인 臨政支持의 政策轉換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3) 自体内の 派争이 激甚할 때는 右派와의 協商을 拒否하거나 強硬한 態度를 取하여 合作協商에 應하지 않고 合作이 되어 있는 경우 左派中 強硬派는 먼저 分裂 脫落하였다. 統合政府에서 共産党内 上海派와 「일쿠츠크」派와의 對立은 左右分裂의 要因이 됐고 이후 唯一黨促成運動에서의 強硬한 原則만의 提示, 1930年代 後半의 左派內 分裂 派争으로 인한 合作의 決裂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1935年 左右統合政黨 民族革命黨의 結成時에는 内部的인 團結이 공고했기 때문에 끝까지 黨을 固守했다. 이점은 自体內的 反對派에게 공격의 재료를 주지 않기 위한 데서 나온 것이다.

4) 右派와의 勢力對比에서는 右派보다 항상 優勢할 때만 積極的인 協商態度를 갖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合作으로 인한 左派勢力의 擴大 또는 左派 「이데올로기」의 實現이라는 側面에 有利하게 作用할 수 있을 것이라는 右派에 대한 評價가 세워졌을 때만이 左派는 協商 및 合作에 應하였다.

이상과 같은 歷史的 經驗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教訓은 共産主義者의 左右協商에 臨하는 態度는 單純히 그들의 「이데올

로기」나 協商에 나타난 戰術 뿐만 아니라 더욱 나아가서는 情勢
觀, 共產主義大國과의 關係, 内部問題 對右派에 대한 認識程度에 따
라 規定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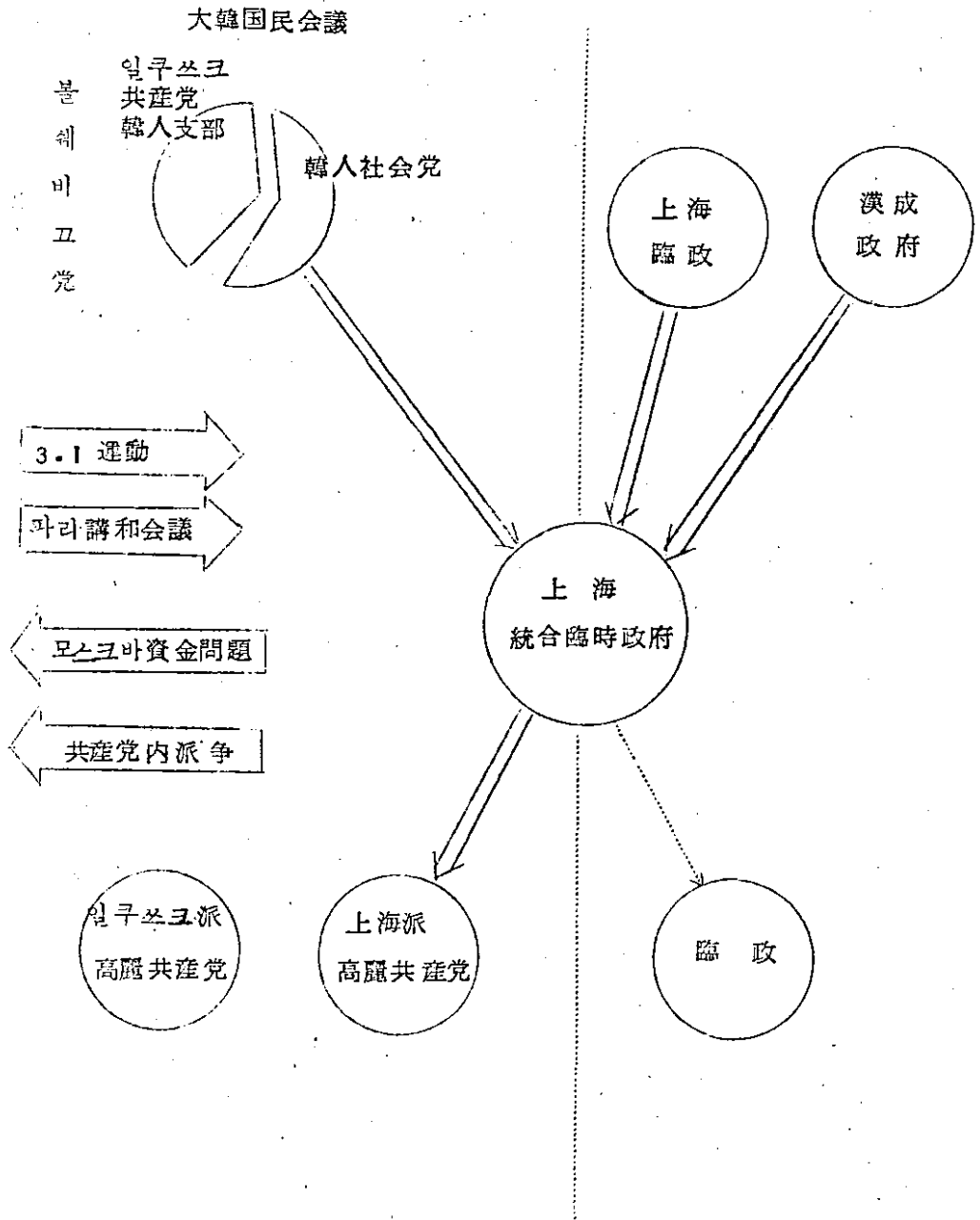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對共協商에 있어서도 北韓의 對外關係, 内
部問題, 對南韓觀 및 韓半島에 미치는 國際情勢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繼統的이면서도 科學的인 研究·分析으로 對処할 것이 要望
된다.

統 合 政 府

左 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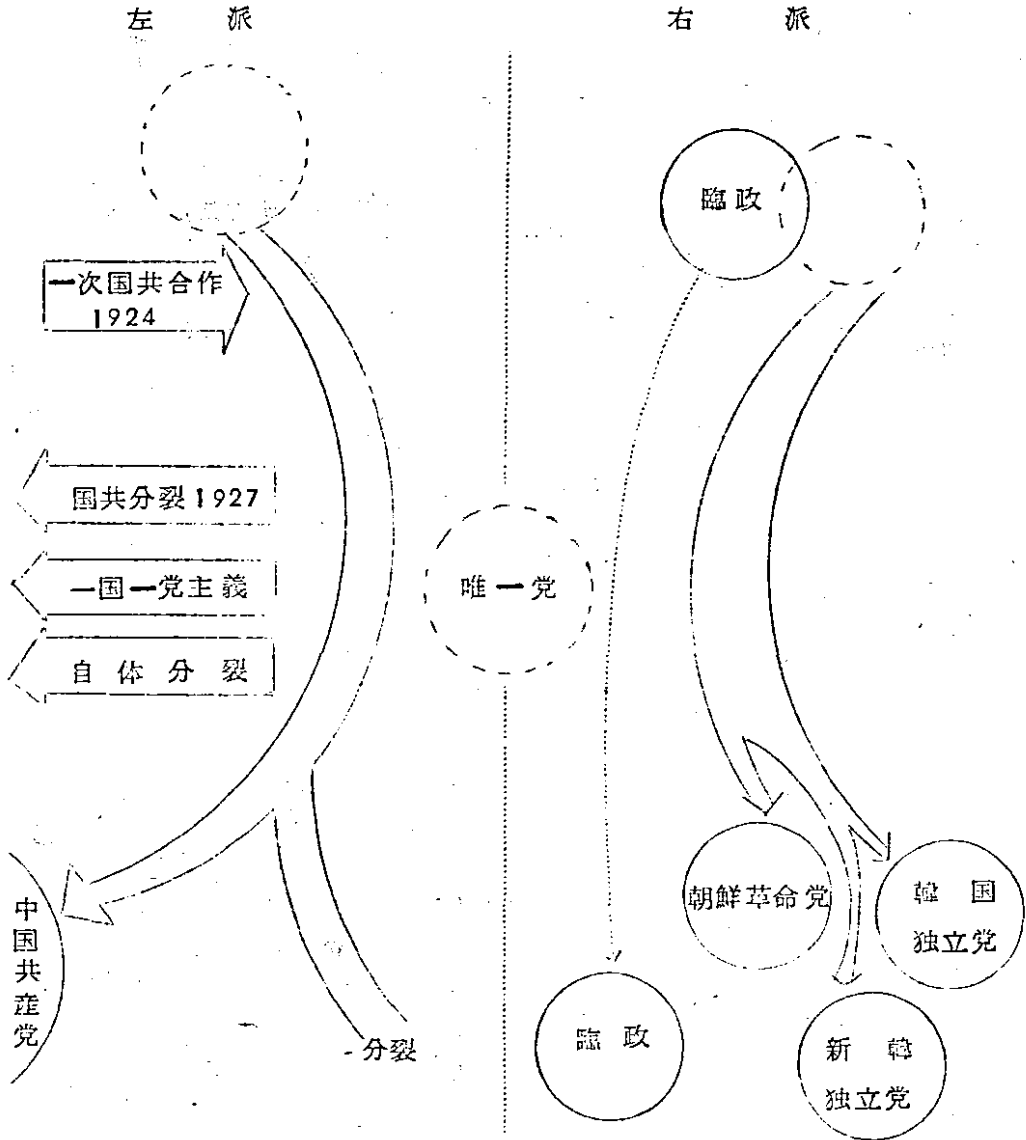
右 派

圖表 1



唯一党促成運動

图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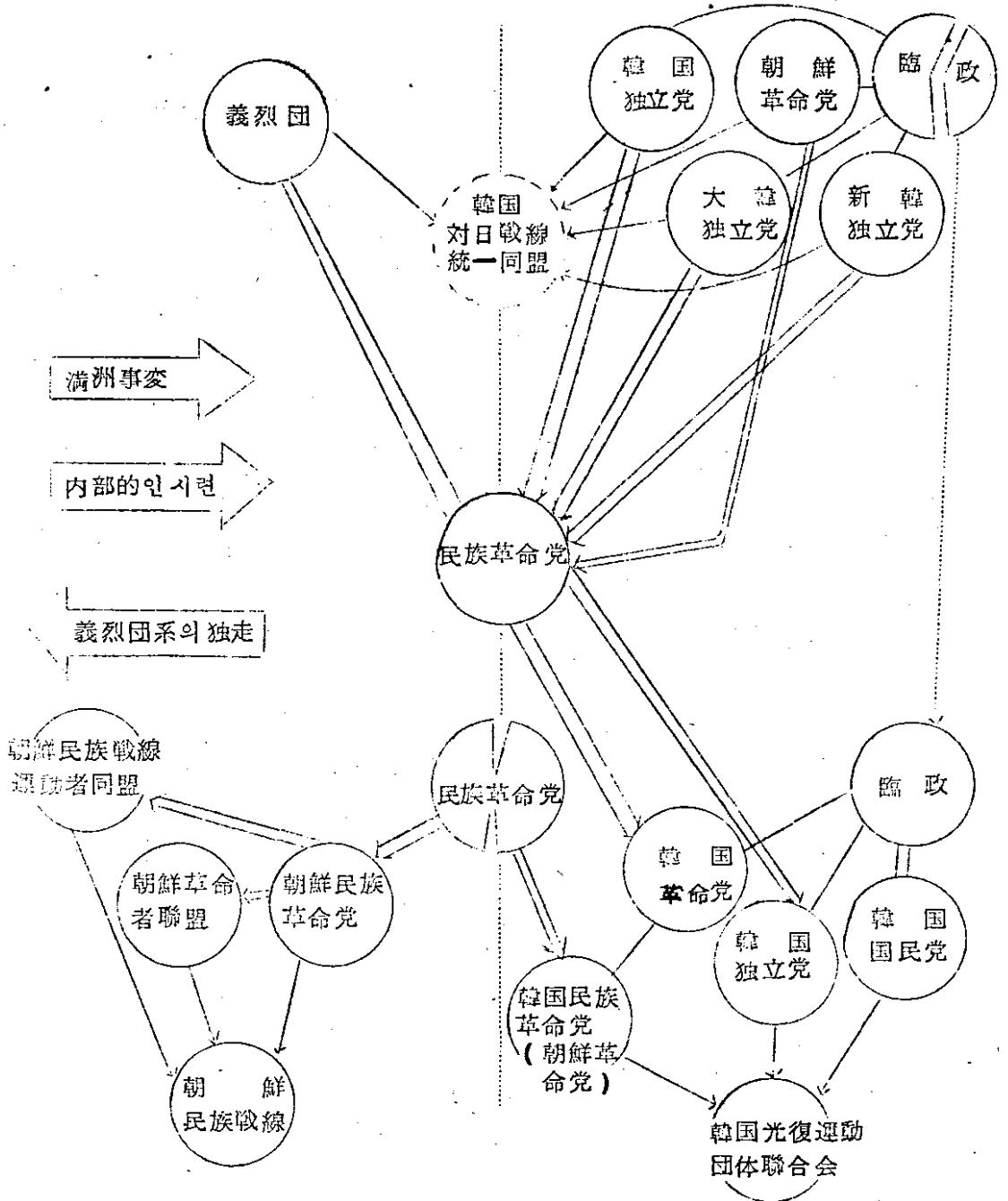


民族革命党으로의 統合

圖表 3

左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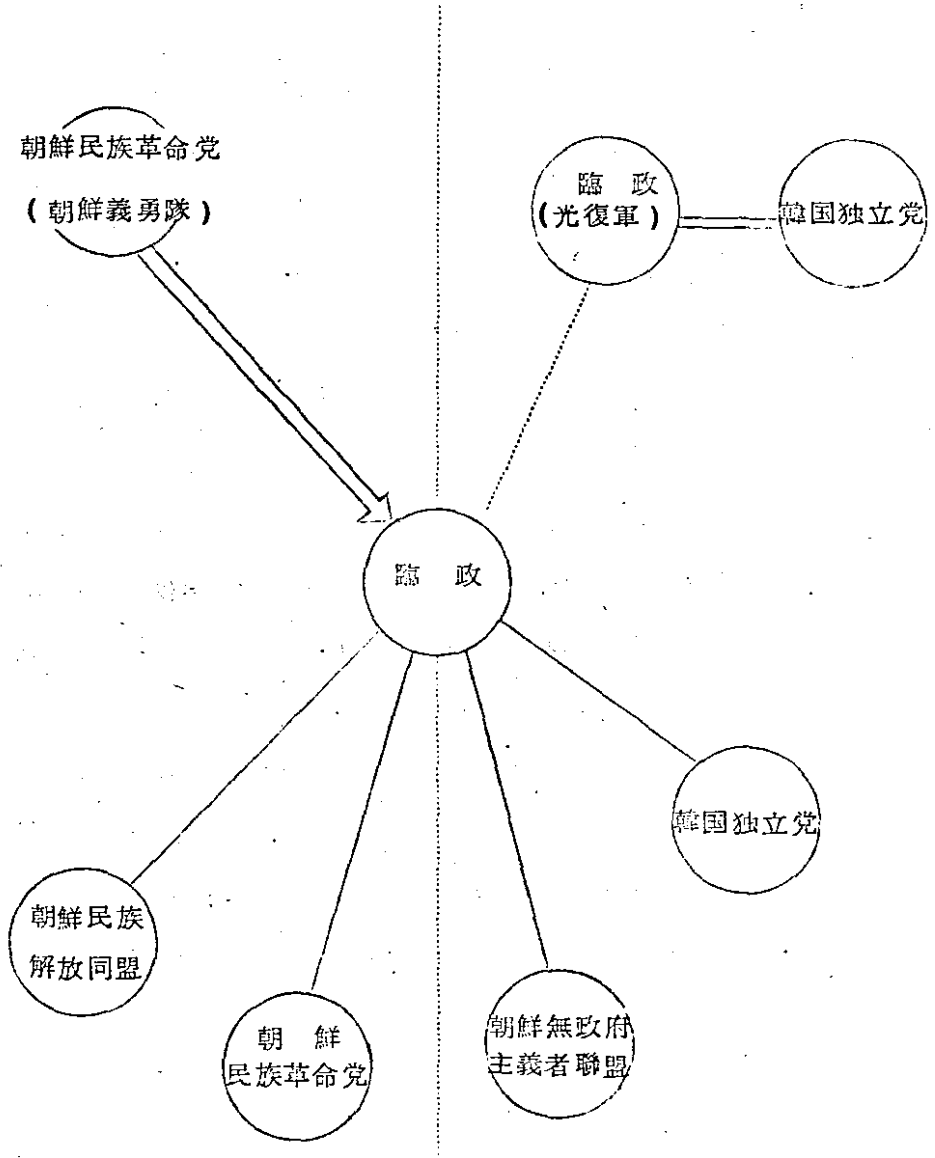
右派



臨政으로의 統合

圖表4

右派



參 考 文 獻

国史編纂委員会，韓国獨立運動史(資料1) 서울：探求堂，1970

国史編纂委員会，韓国獨立運動史(資料2) 서울：探求堂，1971

国史編纂委員会，韓国獨立運動史(資料3) 서울：探求堂，1973

国史編纂委員会，韓国獨立運動史(1-5) 서울：探求堂，1970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獨立運動史 第四卷。서울：獨立遺功者 事業基金
運用委員會，1972

金正明(編)，朝鮮獨立運動(1-5) 東京：原書房，1968.

秋憲樹(編)，資料韓國獨立運動1。서울：延世大學校 出版部，1971.

秋憲樹(編)，資料韓國獨立運動2。서울：延世大學校 出版部，1972.

秋憲樹(編)，資料韓國獨立運動3。서울：延世大學校 出版部，1973.

金俊燁，金昌順，韓國共產主義運動史1。서울：高麗大學校出版部，1967.

洪永道(編)，韓國獨立運動史。서울：愛國同志援助會，1956.

趙芝蕪，韓國民族運動史，高大民族文化研究所，韓國文化史大系1，1964.

民族運動研究所，民族獨立鬥爭史 資料海外篇。서울：與論社，1956.

高在旭(編) 三一運動50周年紀念論集，서울：東亞日報社，1969.

朴殷植，韓國獨立運動之血史，서울：一又文庫，1973.